

전발연 2006-R-09

농산어촌 체험마을 종합관리방안

2006



연구진

연구책임 이 승 형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원 김 진 석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최 정 은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원

연구자문 송 광 인 • 전주대학교 교수
우 장 명 •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박 천 창 • 진안 능길마을 대표
박 재 철 • 우석대학교 교수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도시민의 농산어촌 관광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침체된 농산어촌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는 농산어촌 체험관광을 추진하고 있음. 행정자치부의 정보화 마을(2001년),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2002년), 농촌진흥청의 농촌 전통테마마을(2002년), 산림청의 산촌마을(1995년),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관광마을(2002년) 등 사업의 주목적은 생태계 보존과 친환경적인 개발, 친환경농업과 그린투어리즘에 기초한 주민소득 증대, 주민복지향상을 통한 삶의 질제고 등의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있음.
- 동 사업들의 추진으로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이 상당부분 개선된 면이 있으나, 유사한 사업을 다수의 부처에서 시행함으로써 개발사업의 특성개발 저조, 일률적 지원에 따른 집중화부족, 정책간 연계성 부족 등 이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각 사업들을 상호보완하는 통합적 접근방안이 요구되며, 지역차원에서는 마을조직의 역량있는 리더육성 및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 본 연구는 관련부처별(농림부, 행자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등)로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으로서의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업을 전라북도가 상호보완적 통합적 접근에 의해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농촌마을 조직의 역량있는 리더육성 등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음.

2. 연구의 주요 내용

- 첫째, 농산어촌 관광정책의 대두배경을 살펴본 이후 그린투어리즘의 개념과 특징을 파악함.

- 둘째, 현재 농산어촌 관광의 추진 상황에 대해 검토한 후, 전라북도 내 농산어촌 체험마을의 추진현황과 성과를 파악함. 각 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과제를 도출하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농산어촌 체험마을의 발전적인 요소를 찾아냄.
- 셋째, 농산어촌 체험마을 추진 현황 및 관리체계에 대한 평가에 기인하여 체험마을의 활성화 방안 및 관리체계 방안을 도출하도록 함.

II. 농산어촌 관광정책의 이론적 배경

1. 농산어촌 관광의 개념

-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과 함께 지속가능한 관광, 대안관광, 농업관광, 농촌관광, 생태관광, 팜스테이 등과 같은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 농산어촌 관광은 지속가능한 관광, 대안관광과 원칙과 이념을 같이 하는 하위의 개념이면서 농업관광 및 농촌관광, 생태관광 등의 관광활동이 지니고 있는 요소들을 함께 지니고 있는 포괄적 개념이라 볼 수 있음.

2. 농산어촌 관광정책 도입의 배경

(1) 도입배경

- 국내에서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개발하고 농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관광을 도입하려는 정책적 배경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 할 수 있음.
- 첫째, 기존 농촌관광정책의 한계
 - 기존의 관광농원 중심의 농촌관광정책이 농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연계되는 효과가 미흡함
 -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와 농촌지역사회 활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로 기존의 관광농원 정책과 다른 시각에서 농촌관광을 도입함
- 둘째, 농업·농촌의 다면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수요증가
 - 국민소득의 향상, 환경에 대한 인식제고,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의 재발견 등

- 국민 의식전환에 따라서 농업·농촌의 체험형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대함
- 셋째,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
 -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이농으로 농가의 노동력구조가 노령화되고 농업생산성이 저하되어 농촌 지역사회가 전반적으로 활력을 잃어감에 따라 농촌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농촌경제를 진흥시키고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에서 농림업과 농산촌의 다면적 기능을 상품화하여 농외소득을 올리고 농촌지역을 활성화하는 농촌관광이 도입됨

(2) 우리나라 농산어촌 관광정책의 특징

- 정부의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관광은 농촌의 경관, 역사, 문화, 자원, 생활, 산업을 특징으로 하여 도시민과 농촌 주민들 간의 체류형 교류 활동이며, 여가가 확대됨에 따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와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촌관광을 받아들이고 있음.
- 도시민들에게는 새로운 체험공간과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농촌에는 농산물 판매(1차), 가공사업(2차), 숙박·음식물 서비스(3차) 등 소득원을 제공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음
- 또한 정부의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부처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음. 농림부 사업은 환경농업, 특산품 개발, 관광농원개발사업, 팜 스테이 사업의 연장선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행정자치부 사업은 시범사업의 추진 효과를 확산시키는데 있으며, 농촌진흥청은 고유한 테마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후속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3. 농촌 지역개발정책과 농산어촌 관광

- 농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값싼 식량의 제공에서 다원적 기능으로 전환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존의 농업개발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개발정책의 도입이 필요함
- 농업·농촌이 재도약을 하고 농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소득의 감소분

- 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원 개발이 필요한데 그 대표적인 대안 중 하나가 농촌관광임
- 도시민들이 농촌의 자연·환경·어메니티 등을 즐기기 위해 농촌을 찾아오고, 농촌은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민박·농산물 판매 등을 통해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농촌관광은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

Ⅲ. 농산어촌 관광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

1. 농산어촌체험마을 추진현황

(1) 농산어촌 체험마을의 사업내용 및 목적

- 각 부처가 시행하고 있는 ‘마을단위 지역활성화’사업으로서의 체험마을 사업은 농산어촌 마을의 특성을 개발, 이를 기반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지역발전에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2) 추진부처

- 체험마을 사업의 추진부서는 행정자치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5개 중앙행정기관이며, 각 부처는 독자적으로 체험마을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3) 농산어촌 체험마을 수와 예산지원 현황

- 체험마을은 2013년까지 2,726개를 목표로 2005년까지 634개가 조성될 예정(2004년도까지 521개 조성완료)으로, 이중에서 행정자치부의 정보화마을이 가장 많은 279개,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관광마을이 가장 적은 48개로 나타나고 있으며, 농림부의 녹색체험마을은 123개, 농촌진흥청의 농촌전통테마마을은 66개, 그리고 산림청의 산촌마을은 118개소가 추진되었음
- 체험마을 지원사업으로 보험가입 및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4) 전라북도의 체험마을 추진현황

- 전라북도의 체험마을 지정현황(2005)을 살펴보면 농림부의 녹색체험마을 18개소, 농촌진흥청의 전통테마마을 9개소, 산림청의 산촌개발사업 24개소,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마을 3개소, 행정자치부의 정보화마을 30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음.

2. 농산어촌체험마을 추진정책의 평가와 문제점

(1) 체험마을 사업의 정책적 문제

- 체험마을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적인 문제점으로는 첫째 중앙부처의 분산개발로 인한 비효율성과 비형평성, 둘째 하향적 추진체계 및 사업내용의 편중, 셋째 계획수립 및 집행주체의 다원화와 중복성으로 인한 통합적 지역개발의 미흡과 파편화된 개발 불가피, 넷째 획일적 지원으로 인한 지역간 형평성 왜곡, 다섯째 지역의 농산어촌체험마을 개발 역량 미흡, 여섯째 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추진주체의 미흡 등이 도출됨

(2) 체험마을 사업 운영상의 문제

- 전라북도내 체험마을을 대상으로 한 사례조사 결과 문제점을 정리하면 첫째, 유사한 사업내용으로 인한 경쟁력 미흡, 둘째, 지역주민의 능동적인 참여 부족, 셋째 체험마을 간 네트워크 미흡으로 인한 정보공유 및 학습 한계, 넷째 전문 운영자의 부재 마지막으로 체험마을 사업에 대한 종합적 점검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3. 외국사례 및 시사점

- 프랑스, 독일, 영국 및 일본의 그림투어리즘 발전과정을 통해 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 유럽에서는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농촌관광은 농업구조정책에서 소외된 소규모 농가의 농업경영 다각화 방안으로 정책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대

체로 농업과 농촌을 유지하면서 관광을 도입하고 있으며, 환경보전, 방문객의 체험, 다양한 형태의 농가민박 및 농가레스토랑의 운영을 통한 농외소득의 획득을 확대하고 있으며, 농촌의 전통문화와 농업을 이용한 관광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최근에는 조건불리지역의 농업정책,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존 노력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다. 농촌관광을 위해 농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체계적인 홍보와 마케팅, 시설정비 지원관련 조직을 통한 평가와 품질관리, 세제상의 우대조치 등의 구체적인 수단이 취해지고 있음

- 일본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교류라는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핵심사항은 체험중심의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활동과 지역을 기반으로 한 도농교류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진다는 점임

IV. 농산어촌 체험마을 종합관리방안

1. 농산어촌 체험마을 운영 활성화방안

- 농촌관광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경관보전 등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농촌관광의 수요증대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체험마을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안함

(1) 주민참여 확대

- 마을주민들의 농촌관광에 대한 이해 부족과 마을리더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함
- 이를 위해 첫째 농산어촌체험마을에 대한 사업 설명기회의 확대와 내실화를 기해야 하며, 둘째 지역주민과 행정간 상호이해의 확대 및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셋째 체험마을사업은 관 주도가 아닌 행정과 민간 협력에 의한 추진사업으로서 인식하도록 해야 함
- 또한 지역주민과 교육 및 연수의 공동개최, 농촌지도사업의 공동추진 등 다양한 민관 공동사업을 모색해야 할 것임

(2) 농산어촌관광 리더 육성 및 농촌주민 교육

- 농산어촌체험마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산어촌관광 등 도농교류 관련 인력을 육성하고 관련 분야 종사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의 확충이 시급히 필요함
- 이와 같은 농산어촌 관광 및 농촌개발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교육 프로그램 지원, 현장중심형 농촌지도자 양성 시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한편으로는 농산어촌체험마을사업 및 각종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실무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개발 (가칭)로컬매니저을 조직하고 지역에 파견하는 제도의 신설이 필요함
- 이와 함께 공조직에 있어서 농촌관광 업무 담당자의 교육확대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교육에 있어서도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등 관련 리더 및 농촌주민 전체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육과정(curriculum)별 교육을 시도해야 할 것임

(3) 어메니티 자원 활용 및 도농교류 활동 도입

- 농촌 어메니티 사업에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첫째, 농촌 어메니티 보존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인센티브의 제공, 둘째 농촌 어메니티 자원의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모색에 따른 지원 강화, 셋째 어메니티 시장촉진과 경영지원, 비경제적인 인센티브 부여방법 등의 도입을 추진해야 함
- 더불어 지역여건에 따른 적절한 시설 및 도농교류 활동을 도입해야 함

(4) 마케팅 방안 및 상호연계 시스템 구축방안

- 농산어촌 체험활동에 대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며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익광고의 활용, 공익성을 지닌 오락프로그램 활용, 마을가꾸기 전 과정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 농촌체험 시나리오 공모 및 제작 지원, 농촌관광 투어버스·투어기차 운행, 도시농업의 활성화 등을 제시할 수 있음

- 또한 안정적인 수요창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농교류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그린투어리즘의 추진 주체는 지역의 자치단체와 관련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홍보하여야 하며, '입소문'에 의한 홍보방법의 활용 그리고 홍보 및 마케팅 비용절감을 위해 개인보다는 단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함

2. 농산어촌 체험마을 관리방안

(1) 통합적 정책추진 시스템 도입

- 농산어촌 체험마을을 비롯한 농촌 지역개발의 장기적 목적이 지속가능한 농촌 사회의 실현이라고 할 때 농촌지역개발과 관련된 제반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전북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농산어촌 관광개발 및 지역개발 수단을 제시하는 정책수단을 선택하여야 함
- 또한 농산어촌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계획의 수립과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제도의 도입 등 정책평가제도가 도입되어야 함

(2) 관리조직의 일원화

- 농산어촌 관광정책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개발 사업의 종합적인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부서간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체계의 변화가 요구됨
 - 농업농촌의 다양한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부서별, 기능별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조직인 TFT(Task Force Team)이나 CFT(Cross Functional Team) 등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농촌관광을 비롯한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한편으로 농촌체험관광의 경쟁력 강화와 관광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체험마을 간의 시설, 프로그램, 농산물, 인력 등을 교류하고 연결망을 구축함으로써 다양하고 풍부한 상품 구색을 갖추어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동일

생활권 및 동일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권역 내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광역 도농교류센터를 설치하여 농산어촌 체험마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함

- 이를 통해 비용절감을 도모하고 전문가 및 귀농인의 체계적인 유입을 시도함으로써 농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설정해야 함

목 차

제 1 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선행연구	4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내용	6
3. 연구의 방법	6
제 2 장 농산어촌 관광정책의 이론적 배경	9
제1절 농산어촌관광의 개념	11
1. 유사용어의 정의	11
2. 농산어촌 관광의 개념	15
제2절 농산어촌 관광정책 도입의 배경	16
1. 농촌을 둘러싼 여건의 변화	16
2. 관광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	17
3. 우리나라 농산어촌 관광의 도입과 특징	19
제3절 농촌 지역개발정책과 농산어촌 관광	21
1. 농촌지역 개발정책의 목표와 수단	21
2. 농산어촌 지역개발과 농산어촌 관광	22
제 3 장 농산어촌 관광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	23
제1절 농산어촌 관광정책의 추진현황	25
1. 기본방향	25
2. 추진현황	25
3. 부처별 농산어촌 관광(체험마을)정책	29
4. 전라북도 체험마을 현황	44

제2절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업의 평가와 문제점	49
1. 중앙정부 차원의 기존 농촌관광 정책의 평가	49
2.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업의 문제점	49
제3절 외국의 그린투어리즘 추진사례	54
1. 프랑스의 그린투어리즘 발전과정과 관련조직	54
2. 독일의 그린투어리즘 발전과정과 관련조직	56
3. 영국의 그린투어리즘 발전과정과 관련조직	58
4. 일본의 그린투어리즘 발전과정과 관련조직	59
5. 외국 사례의 시사점	60
제 4 장. 농산어촌 체험마을 종합관리방안	63
제1절 농산어촌 체험마을 운영 활성화방안	65
1. 주민참여 확대	65
2. 농산어촌 관광 리더 육성 및 농촌주민 교육	68
3. 어메니티 자원활용 및 도농교류 활동 도입	76
4. 마케팅 및 상호연계 시스템 구축	78
제2절 농산어촌 체험마을 관리방안	84
1. 통합적 정책추진 시스템 도입	84
2. 관리조직의 일원화	85
부 록	89
참고문헌	97

표 목 차

<표 1>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원계획	30
<표 2> 농촌전통테마마을 지원계획	32
<표 3> 산촌개발사업 지원계획	35
<표 4> 산촌개발사업 지원시설의 종류	36
<표 5> 어촌체험마을사업 투자실적 및 지원계획	38
<표 6> 정보화마을 연차별 추진현황	39
<표 7> 체험마을별 비교(1)	41
<표 8> 체험마을별 비교(2)	40
<표 9> 사무장 채용사업 연도별 지원계획	42
<표 10> 보험가입 지원사업 연도별 지원계획	44
<표 11> 전라북도 녹색농촌체험마을 현황	45
<표 12> 전라북도 전통테마마을 현황	46
<표 13> 전라북도 어촌체험마을 현황	46
<표 14> 전라북도 산촌개발마을 현황	47
<표 15> 전라북도 정보화마을 현황	48
<표 16> 프랑스의 그린투어리즘 관련 조직현황	54
<표 17> “지트 드 프랑스”의 민박 유형 구분	55
<표 18> 네트워크화된 농촌관광 시설에 대한 브랜드화 사례	56
<표 19> DLG의 품질보증 대상 민박과 평가 항목	57
<표 20> 일본의 그린투어리즘 프로그램	60
<표 21> 전라남도 행복마을과 직제 및 담당업무	86

그림 목차

<그림 1> 사회환경 및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대안관광의 등장	18
--	----

제 1 장

연구의 개요

제 1 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최근 농업부문에 있어 DDA협상, FTA협상 등 개방 확대로 경쟁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농촌사회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노령화·부녀화되어 농외취업을 통한 소득증대도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의 기능과 활력이 점차 쇠퇴되고 있어 지역사회 활성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 지금까지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던 환경문제도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도시로의 경제력 집중으로 도시민의 소득은 높아졌으나 누적되는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삶의 질은 악화됨에 따라 심신의 피로를 풀어주고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하는 아늑하고도 고향 같은 여가 공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종전 유명 명소위주의 획일적인 대중관광형태 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바라는 관광 수요증대 등으로 농산어촌 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 5일제 근무, 주 5일제 수업 등으로 국내관광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국민 1인당 관광경험도 93년 4.8회에서 2001년 6.1회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국내관광총량도 2002년 4억명, 2005년 5.1억명, 2011년 6.1억명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된다.

이러한 도시민의 농산어촌 관광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침체된 농산어촌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는 농산어촌체험관광을 추진하고 있다. 농산어촌 체험관광은 도시민에게 삶의 여유를 찾게 해주고 농산어촌에는 지역활성화와 소득증대 효과가 있어 도시·농촌 모두에게 이익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증가된 관광수요를 농산어촌관광으로 흡수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여건 정비를 통해 침체된 농산어촌의 기능과 활력회복의 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농산어촌 지역의 활성화가 국정의 주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면서, 각 부처는 '마을단위 지역활성화' 사업을 조성·추진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정보화 마을(2001년), 농

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2002년), 농촌진흥청의 농촌전통테마마을(2002년), 산림청의 산촌마을(1995년),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관광마을(2002년)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업의 주목적은 생태계 보존과 친 환경적인 개발, 친 환경농업과 그린투어리즘에 기초한 주민소득 증대, 주민복지향상을 통한 삶의 질제고 등의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있다.

동 사업들의 추진으로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이 상당부분 개선된 면이 있으나, 유사한 사업을 다수의 부처에서 시행함으로써 개발사업의 특성개발 저조, 일률적 지원에 따른 집중화부족, 정책간 연계성 부족 등 이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각 사업들을 상호보완하는 통합적 접근방안이 요구되며, 지역차원에서는 마을조직의 역량있는 리더육성 및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배경과 필요성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관련부처별(농림부, 행자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등)로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으로서의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업을 전라북도가 상호보완적 통합적 접근에 의해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농촌마을 조직의 역량있는 리더육성 등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제2절 선행 연구

최근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여가패턴의 변화에 따라 농산어촌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호철¹⁾은 그린투어리즘이란 관점에서 세계 각국의 실태를 살펴보고 우리 관광농원 실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약초를 테마로 한 새로운 시민농원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대도시 자연녹지를 이용한 그린투어리즘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정기환²⁾은 농촌

1) 이호철, '그린투어리즘에 의한 지역사회개발방안 : 대구시의 약초 시민농원 개발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제10집, 한국농촌사회학회, 2000.

2) 정기환,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정책의 발전방향', 농촌경제, 제24권 제2호,

주민의 소득증대와 농촌지역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그린투어리즘의 도입과 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득증대, 건강한 농식품 생산, 자연경관 및 전통문화에 대한 체험, 농촌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도시와 농촌주민의 교류, 녹색마을가꾸기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 등 다섯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강신겸³⁾은 농촌의 다양한 자연경관과 생태, 문화자원 등에서 차별화된 가치와 가능성을 발굴하여 도시와 농촌이 교류함으로써 농촌활성화를 도모하는 농촌관광 전략 즉 개별농가 중심, 숙박중심의 관광에서 탈피하여 ‘자연환경+농특산물+전통문화’를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도시와 교류하는 농촌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범수 외⁴⁾는 한국과 일본의 그린투어리즘을 비교분석하면서 그린투어리즘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동 연구를 통해 농산촌의 관광휴양시설간 네트워크 강화, 사회간접자본 투자, 반복 이용자의 확보, 참여프로그램 및 관련시설의 조성·정비,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지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박시현⁵⁾은 유럽과 일본의 그린투어리즘 관련 정책 지원체계를 상세히 정리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농산어촌관광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개념 및 이론적 논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이나 협력을 주장하고 있다. 농산어촌관광은 농촌활성화에 기반을 두고 전개되는 것으로 농촌지역 주민과 도시주민들의 상호원활한 대응이 필요하며, 그 성공을 위한 기반은 주민들과의 공동협력을 바탕으로 두어야 하며, 다양한 사회와 문화의 가치를 반영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 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관리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관리방안 및 마을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은 제시되지 않은 바,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 3) 강신겸, ‘여가시간 확대와 농촌관광의 가능성’, 여가와 농촌활성화 심포지움, 전국농업기술자협회·삼성경제연구소, 2001
- 4) 김범수 외, ‘한국과 일본의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비교연구’, 관광연구, 제16권 제1호, 대한관광경영학회, 2001
- 5) 박시현 외, “유럽 주요국에서의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행정적 지원”, 『관광농업연구』제8권 제1호, 한국관광농업학회, 2001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과제의 핵심은 농산어촌 체험마을의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과제의 발굴과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농산어촌 체험마을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산어촌 체험마을을 이용하는 수요자의 요구사항 및 공급자의 조건을 맞춰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요건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논리의 전개를 위해 농산어촌 체험마을의 관리체계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였다. 또한 농림부를 비롯한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체험마을 외에 행정자치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보화마을은 그 목적과 성격에 있어 체험마을과 차이는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체험마을에 포함하여 연구하도록 한다.

한편 용어의 사용에 있어 그린투어리즘과 농촌관광이란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농촌관광이란 용어가 정책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그린투어리즘이란 용어를 농촌관광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2. 연구의 내용

연구의 내용을 순서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산어촌 관광정책의 대두배경을 살펴본 이후 그린투어리즘의 개념과 특징을 파악한다.

둘째, 현재 농산어촌 관광의 추진 상황에 대해 검토한 후, 전라북도 내 농산어촌 체험마을의 추진현황과 성과를 파악한다. 각 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과제를 도출하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농산어촌 체험마을의 발전적인 요소를 찾아낸다.

셋째, 농산어촌 체험마을 추진 현황 및 관리체계에 대한 평가에 기인하여 체험마을의 활성화 방안 및 관리체계 방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3.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현지조사 그리고 관련 당사자에 대한 면접조사를 병행

하여 추진한다.

문헌조사는 관광자원, 관광개발의 유형별 개념 파악을 위한 이론서 및 보고서, 농산어촌관광 관련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고서, 농촌관광 수요 및 공급전망에 관한 보고서와 논문, 농산어촌관광 실태에 대한 제반 보고서 및 논문,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현재 추진 중인 농산어촌 관광 현황 등을 대상으로 한다.

현지조사는 최근 추진 중인 농산어촌 체험마을에 대한 방문조사이며, 관련당사자에 대한 면접조사는 체험마을 추진위원장, 사무장, 자치단체의 체험마을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 2 장

농산어촌 관광정책의 이론적 배경

제 2 장 농산어촌 관광정책의 이론적 배경

제1절 농산어촌 관광의 개념

1. 유사용어의 정의

선진국에서 사용되는 그린투어리즘의 공통적 위상과는 별도로 이론적 논의나 일상적인 관념으로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과 함께 지속가능한 관광, 대안관광, 농업관광, 농촌관광, 생태관광, 팜스테이 등과 같은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각기 국가, 시대 혹은 사용하는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업·농촌 여건에 적합한 그린투어리즘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유사용어 각각에 대하여 강조하는 점에 대한 간략한 정의를 한 후에 본고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농산어촌 관광에 대한 정의를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농촌관광(Rural tourism)

농촌관광은 농장관광과 농업관광의 개념을 포괄하는 폭넓은 의미로서 농촌지역의 자연과 문화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관광을 총칭한다. 특히 농촌이라는 장소보다는 그 장소적 특성이 중요하며, 농촌이라는 보편적 특성, 즉 농촌성을 바탕으로 하는 관광활동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도시민들이 농촌다움이 보존된 농촌에 머물면서 그곳의 생활을 체험하고 여가를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대체로 농촌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농업생산이 이루어지는 곳과, 도시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자연, 생태, 경관을 보유한 공간, 오랜 기간 전해져 온 전통과 역사가 있는 공간, 농촌주민의 생활문화 등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일본에서 정의되는 농촌관광은 도시가 아닌 바다나 산, 그리고 농촌지역을 무대로 전개되는 관광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⁶⁾.

2) 농업관광(Agriculture tourism)

농업관광은 농가, 농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농산물 판매, 민박제공, 농사 체험 등 농업생산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를 관광 상품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광농장 또는 관광농원은 농업관광의 보다 구체적인 실체다.

우리나라와 같이 농가 단위가 작은 사회에서의 농업관광은 농업생산과 관련된 체험민박과 음식 및 농산물 판매행위를 관광대상으로 한다면 농가단위가 큰 유럽에서는 농장 안에서 일어나는 농업관련 생산 및 판매, 승마와 낚시, 워킹, 스포츠, 체험학습 등 다양한 활동을 관광대상으로 한다⁷⁾.

3) 팜스테이(Farm stay)

팜스테이란 도시민 등이 기존 민박농가에서 단순한 잠자리만 했던 것과 달리 농가에 머물면서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받으며 영농체험과 농촌문화를 접하는 기회를 가지며, 지역명소에서 관광까지 즐길 수 있는 여가형태로서 ‘농촌+문화+관광’이 결합된 일석삼조형 농가민박 프로그램으로 종전의 ‘홈스테이(home stay)’를 명칭변경한 것이다. 아직 영농체험은 적고 숙박제공(체재)을 위주로 하고 있다.

팜스테이도 개별농가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마을이나 지역이 일체가 되어 추진하는 지역진흥전략에 미치지 못하여 아직 본격적인 진입기 이전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4) 생태관광(Eco tourism)⁸⁾

생태관광은 “자연경관, 야생동식물을 연구하고 감탄하며 즐기고자 하는 특별한 목적으로 문화지역은 물론 비교적 교란 및 오염되지 않은 자연지역에서 행해지는 관광”으로 1983년 Ceballos-Lascurain이 규정하면서 처음 거론하였다. Ceballos-Lascurain

6) 강신겸, 김정연 역, 「녹색관광」, 일신사, 1997. p.26

7) 정기환,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정책의 발전방향”, 농촌경제 제24권제2호, 2001. p.75

8) 송두범, 농어촌지역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충남발전연구원, 2002. pp.14-15

이 제기한 주장이 국제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방법으로 주목받은 것은 1990년대부터이다. 그 후 생태관광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생태관광 또는 그와 유사한 관광이 선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생태관광은 관광이 자연환경에 가할 수 있는 생태학적 손상은 물론 자연지역의 가치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삶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발전하게 된 대안적 관광(alternative tourism)의 하나이다.

생태관광학회는 생태관광을 “자연자원의 보전이 곧 지역주민의 편익이 될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면서 환경의 문화적 자연적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자연지역으로 떠나는 의미있는 여행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 외 많은 학자와 국제기구 혹은 국가들이 생태관광을 서로 다른 많은 용어를 사용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이들 정의에는 ‘비교적 훼손되지 않은 자연지역’, ‘환경교육 기회제공을 통한 환경의식 제고’, ‘지역사회 고려’라는 세 요소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생태관광은 단순히 자연지역을 방문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감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내포되어 있다. 개인의 여행동기를 충족시키면서도 대상지의 자연환경은 물론 지역사회의 문화와 생활을 존중하면서 여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생태관광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가 내려져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자연지역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전통적인 문화현상들과 자연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을 관광의 주된 동기로 하는 모든 자연기반의 관광형태, ② 교육 및 해설적인 특성을 포함. ③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지방의 작은 특화된 기업체가 작은 집단을 대상으로 조직, 다양한 규모의 외국 운영자들도 일반적으로 소집단을 대상으로 생태관광 여행을 조직·운영·판매, ④ 자연환경과 사회·문화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연 지역의 보호를 지원 : 자연지역을 보전 목적으로 관리하는 호스트 지역사회, 기관, 당국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준다, 지역사회에 대한적인 고용과 수입의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자연 및 문화자산의 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생태관광은 단순히 자연에서 발생하는 관광이 아닌 보전에 기여하며,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자원 및 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여러 유형의 환경교육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여행자의 환경의식을 높일 수 있는 관광이라 할 수 있다.

5)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

지속가능성의 개념에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물론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모두 포함되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⁹⁾.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해 세계관광기구(WTO:World Tourism Organization)는 세가지 중요한 특성을 강조하는데 첫째, 방문자 관광경험의 질, 환경의 질을 향상하거나 보호하는 것이고, 둘째 관광경험의 질을 만족시키면서 기본적인 자연자원의 연속성과 지역사회·문화에 대한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며, 셋째 관광산업, 환경보호자, 지역사회의 요구를 균형있게 수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¹⁰⁾.

지속가능한 관광이란 대규모 관광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을 파괴하거나 관광자원이 고갈되거나 황폐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적 개념의 하나이다. 생태관광과 지속가능한 관광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생태관광이란 용어 그 자체는 관광부분 내의 한 부분을 일컫는 반면, 지속가능성은 기존 및 대안 형태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관광활동, 운영, 설립, 사업에 적용되어야 한다.

6) 대안관광(Alternative tourism)

대중관광(mass tourism)이 관광수요 충족 및 관광공급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대규모 관광시설을 조성하여 관광산업을 진흥시키는 방식이라면, 대안관광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패러다임 아래서 대중관광이 야기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들을 인지하고 이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질적인 관광경험을 제공하는 다양한 관광을 의미한다¹¹⁾. 대안관광의 종류로는 학습관광, 생태관광, 자연관광, 농장관광, 연성관광, 모험관광 등 대중관광 유형과는 다른 특별한 관심분야의 다양한 관광종류가 대안관광으로 불리우고 있다.

9) 김남조, “지속가능한 관광개발과 지역주민의 태도” 한국관광학회 50차학술연구발표논문집, 2001. p.60

10) 박재현, “그린투어리즘 발전방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지역주민의 의견을 중심으로”, 한국호텔관광학회, 호텔관광연구 제7권제1호, 2005. p.55

11) 박시현,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개발모형 정립과 실용화 방안』, 농림부, 2002. pp23-34, 정기환, “그린투어리즘 정책방향과 과제”, 그린투어리즘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정책토론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6.29. p.5

즉 대안관광은 지역의 자원과 자연환경에 바탕을 둔 소규모 관광시설과 소규모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산업으로서의 관광산업을 유치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2. 농산어촌 관광의 개념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개념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¹²⁾는 “현대 도시인들이 건강·휴식을 위해 농산촌의 푸른 자연공간을 찾아 나서는 ‘전원관광’”이라고 정의하였고, 산림청¹³⁾은 광의의 그린투어리즘은 친환경적, 환경보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관광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칭하며, 협의의 그린투어리즘은 주로 농산촌지역에서 일어나는 관광 즉 농촌관광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일본의 야마자키는 농촌관광을 전형적인 농촌이나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관광, 서비스의 주체가 농가나 지역주민, 도시민과 농촌주민 간의 교류를 통해 농촌의 생활, 문화 자원 등 각종 자원을 보존하면서 지역사회 활성화에 공헌하는 것 등을 충족시키는 관광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¹⁴⁾.

한편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그린투어리즘은 농림부의 농촌관련 부처에서의 정책과 행정의 대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농림부는 그린투어리즘을 정책사업으로 도입하면서 농산촌의 풍성하고 깨끗한 자연경관과 지역의 전통문화·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한 도시민과 농산촌 주민간의 체류형 교류활동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¹⁵⁾. 농림부의 그린투어리즘 정의에 따르면 도시민에게는 휴식·휴양과 새로운 체험의 공간을 제공하고, 농산촌에는 농산물판매(1차), 가공·특산물생산(2차), 관광 및 음식물 판매(3차) 등 새로운 소득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의 활력증대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농산어촌관광은 잠정적으로 위에서 논의한 지속가능한 관광, 대안관광과 원칙과 이념을 같이 하는 하위의 개념이면서 농업관광 및 농촌관광, 생태관광 등의 관광활동이 지니고 있는 요소들을 함께 지니고 있는 포괄적 개념이라 볼 수 있다.

12) 한국관광공사, 「농어촌 관광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1996

13) 산림청, 「녹색관광과 산촌활성화」, 1999

14) 山崎光博 外, 「녹색관광」, 일신사, 1993

15) 농림부, 농외소득증대 중장기추진계획, 농림부 내부자료, 2001

제2절 농산어촌 관광정책 도입의 배경

1. 농촌을 둘러싼 여건의 변화

최근 농촌은 외부적으로는 수입개방의 압력이 가중되고 내부적으로는 이농현상으로 인한 공동화, 고령화 현상으로 어려운 시점에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정부는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직접지불제, 토지구제완화, 도농교류활성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농촌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농촌현실은 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과거의 지속적인 농촌투자에도 불구하고 농촌은 아직 도로, 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 시설과 교육·의료 등 사회복지 시설이 도시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고, 그동안 계속되어 온 이농현상으로 빈집과 폐교가 곳곳에 산재 하는 등 또 다른 지역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촌이 지속적인 인구감소는 직접적으로 지역경제와 농가경제에 영향을 미쳐 도시가구 대비 농가소득이 90년 97.4%에서 2003년에는 73%로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향상, 주5일근무제 실시, 교통망의 발달 등으로 국민 여가 패턴이 변화하고 농촌의 다원적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농촌관광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농촌경제연구원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농촌관광의 연간 수요량이 2001년에는 3천만명 수준이었으나 2011년에는 1억 4천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국내관광에서 농촌관광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 9.4%에서 2011년에는 24.1%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¹⁶⁾. 특히 주목해야 될 연구결과는 도시민의 64.6%가 농촌관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살펴보면 우리 농촌관광의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찾아볼 수 없는 자연경관, 역사전통문화 등의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들이 농촌에 투자하고 자주 찾아오게 함으로써 도시민에게 농촌전원생활의 쾌적함과 여유로움을 제

16) 박시현 외, 「우리나라 농촌관광 발전 방향 및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p.30

공함으로서 새로운 농촌지역 활성화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

특히 농지전용이 쉬운 한계농지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 농지전용을 통해 펜션, 전원주택을 건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말이나 여가를 농촌에서 가족단위로 영농 체험을 하면서 보내는 건전한 관광형태가 앞으로 크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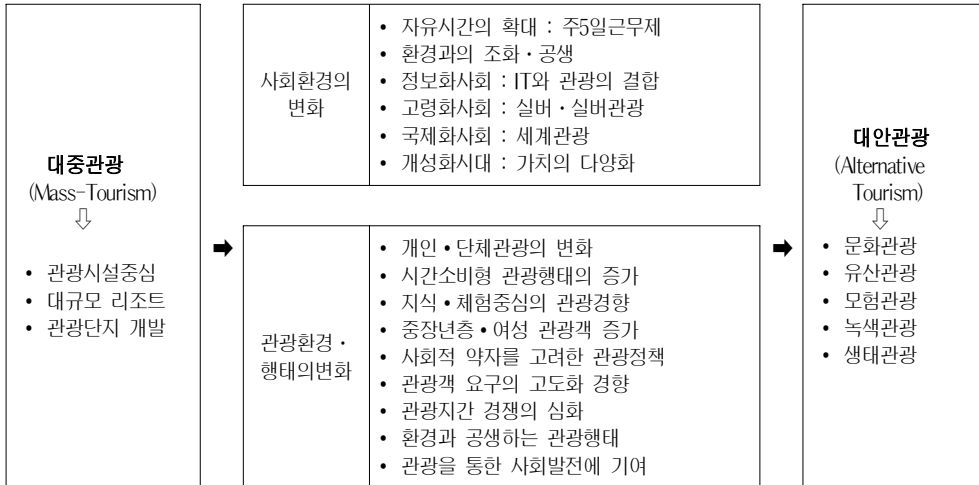
2. 관광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

오늘날의 관광은 기존의 매스투어리즘 중심의 관광에서 새로운 유형의 관광이 모색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의 사회환경과 관광환경의 변화에 의해 최근에는 새로운 관광활동이 등장하고 있다.

사회환경의 변화에서 나타난 특징은 자유시간의 확대, 환경과의 조화·공생, 정보화 사회의 진전, 고령화 사회의 도래, 국제화 사회의 진전,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요구하는 개성화시대 등이다. 특히 주5일 근무제의 정착과 새로운 휴가문화의 확대, 여가를 중시하는 국민의식의 증대, 여가시간을 많이 갖는 고령자 인구의 증대 등으로 자유시간의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보편적이고 규격화된 관광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유형의 관광이 등장하고 있다.¹⁷⁾

한편 전술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의해 관광환경과 행태 또한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 그러한 변화에는 개인단체관광의 변화, 시간소비형 관광행태의 증가, 지식·체험을 중시하는 관광활동의 확산, 중장년층과 여성관광객의 증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관광정책의 강조 등이 있다. 관광객의 주체적 관광경험이 풍부해져 요구수준이 고도화되는 경향이 있고, 관광정보의 다양한 접근성에 의해 관광시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공행하려는 새로운 유형의 관광행태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관광을 통한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 예를 들어 관광을 통한 지역의 발견, 창조에 의한 지역의 활성화, 환경보존과 국제사회의 공헌 등이 나타나고 있다.

17) 이정록 안종현, “지역관광의 진흥을 위한 마을만들기 전략”, 지역개발연구 36권 제1호 04. 6. pp.177-193



<그림 1> 사회환경 및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대안관광의 등장

자료 : 이정록 안종현, “지역관광의 진흥을 위한 마을만들기 전략”, 지역개발연구 36권 제1호 04. 6. p.179

전술한 관광환경의 변화에 의해 시간소비형 관광행태와 자연환경을 중시하는 관광행태가 강조되고 있다. 즉 관광경험이 풍부해지고 자유시간 사회가 정착되면서 과거의 주유형 관광보다는 특정한 사회에서 여유롭게 체제하고 그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이해하고 즐기는 시간소비형 관광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환경과 공생하고 조화를 이루려는 성향의 관광활동이 증가하면서 지역의 자연 · 역사 · 문화의 이해와 만남을 선호하고 요구하는 관광행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환경과 공생한 관광행동과 관광지 만들기가 주목되고 있으며, 지역환경과의 공생과 조화를 강조하는 녹색관광, 생태관광, 생태박물관(eco-museum)등에 기초한 관광지 만들기와 지역만들기의 과정이 새롭게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광행태적 변화에 의해 관광지 및 관광상품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비대중적인 선호가 증가하면서 1980년대 후반부터 매스투어리즘을 대체하는 대안관광(alternative Tourism)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최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대안관광에는 문화관광, 유산관광, 모험관광, 생태관광, 녹색관광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3. 우리나라 농산어촌 관광의 도입과 특징

1) 농산어촌 관광의 도입배경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개발하고 농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관광을 도입하려는 정책적 배경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기존 농촌관광정책의 한계

기존의 관광농원 중심의 농촌관광정책은 시장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점도 없지 않으나 시설 중심의 확충에 치우쳐 농촌지역의 고유의 특성을 관광자원화하지 못하였고, 농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연계되는 효과가 미흡하였다.

관광농원 개발에서 나타난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지원단위를 개인사업자 중심에서 마을단위로 전환하고, 관광자원의 다면적 이용, 관광체험의 다양성을 기하는 동시에 투자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는 방향이 모색되기에 이르렀다.

즉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와 농촌지역사회 활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로 기존의 관광농원 정책과 다른 시각에서 농촌관광을 도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농업 농촌의 다면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수요증가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국민들의 여가수요가 급증하고 국민소득의 향상, 환경에 대한 인식제고, 농업 농촌에 대한 가치의 재발견 등 국민의 의식전환에 따라 자연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농촌이 새로운 여가공간으로 부각되고 있다.

도시민들의 관광패턴이 체험형·가족중심형으로 변하고 있으며, 건강, 생태, 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적절한 인프라만 구축된다면 농촌도 훌륭한 여가공간이 될 수 있다. 농촌관광은 도시민들에게는 휴식과 색다른 체험을, 농촌에는 민박, 농산물 판매 등을 통해 농촌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관광상품의 다양화 또는 관광목적지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도 농촌관광은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

산업화과정에서 농촌지역의 생산성 높은 젊은 인구의 지속적인 이농으로 농가의 노동력구조가 노령화되고, 농산물 시장개발이 가속화되면서 농업생산성 저하와 가격경쟁력 저하 및 판로 부족으로 농업소득이 낮아지고 있다. DDA농업협상, 한미FTA협정,

한중FTA협상 등으로 새로운 환경변화가 예상되면서 우리 농가 소득의 하락과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경쟁력은 낮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농촌지역사회가 전반적으로 활력을 잃어감에 따라 농촌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농촌경제를 진흥시키고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의 일환으로 도시민들을 불러들여 판매, 서비스를 덧붙임으로써 농촌을 활성화시키려는 시도 즉, 도농교류(都農交流)를 통한 농촌활성화 방안이 부각된 것이다.

농촌관광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농림업과 농산촌의 다면적 기능을 상품화하여 농외소득을 올리고 농촌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일찍이 이러한 농업환경 변화를 경험한 유럽과 일본 등에서는 농촌관광을 농촌지역 활성화 전략으로 채택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는 점도 농촌관광에 관심을 두는 배경이다.

2) 우리나라 농산어촌 관광정책의 특징

정부의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관광 정책의 특징은 농촌의 경관, 역사, 문화, 자원, 생활, 산업을 특징으로 하여 도시민과 농촌 주민들 간의 체류형 교류 활동이라는 점이다. 또한 도시민의 여가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와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 농촌관광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촌관광 정책은 도시민들에게는 농촌이라는 새로운 체험공간과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농산물 판매(1차), 농산물 가공사업(2차), 숙박·음식물 서비스(3차) 등 기존 소득원 외에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신념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부처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농림부 사업은 환경농업, 특산품 개발, 관광농원개발사업, 팜 스테이 사업의 연장선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은 고유한 테마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후속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사업은 정보화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농촌관광을 추진하고 있다.

제3절 농촌 지역개발과 농산어촌 관광

1. 농촌지역 개발정책의 목표와 수단

1) 생활공간으로서의 농촌개발

공공서비스(의료, 교육, 복지, 문화 등)와 사회간접자본(주택, 도로, 상하수도, 교통, 정보, 통신)은 농촌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조건이다. 국가최소기준(national minimum)의 관점에서 전 국민이 농촌이나 도시 어디에 살든 최소한 누리고 살 수 있는 생활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공공부문의 역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서비스와 사회간접자본을 제공하는 농촌지역개발정책이 필요하고, 생활공간으로서 농촌지역의 낙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재정지출이 요구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요구(needs)에 기초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2) 경제활동공간으로서의 농촌개발

농업은 농촌지역의 가장 중요한 기반산업이다. GNP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은 이미 4 %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농촌지역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절대적이기 때문에 농업개발은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요한 과제이다.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유지가 필요하고, 또한 농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값싼 식량의 제공에서 다원적 기능으로 전환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농업발전의 방향도 환경친화적인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향후 국민경제 전체 뿐 아니라 농촌지역에서도 농업의 비중은 계속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촌사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경제활동이 다각화되어야 한다. 경제활동의 다각화는 농민의 경제활동 다각화(겸업의 확대)뿐 아니라 비농민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촌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관련해서 농산물의 가공 및 마케팅, 새로운 기업(특히 중소기업)의 창업, 전통산업과 농촌관광의 활성화 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농업개발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농촌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

의 도입이 필요하다.

3) 환경 및 경관 공간으로서의 농촌개발

농촌과 농업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변화하면서 환경 및 경관공간으로서 농촌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농촌은 단순한 생산공간이 아니라 레저와 휴식공간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농촌의 환경 및 경관은 이른바 개발의 미명 아래 급속도로 파괴되었기 때문에 농촌의 환경 및 경관을 회복하고 보전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이다. 회복하고 보전해야 할 환경 및 경관의 범위에는 자연환경 뿐 아니라, 야생동식물 보호, 유형·무형의 전통적 문화유산(전통 건축물, 문학 및 예술, 축제, 식문화 등), 그 지역의 개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 및 경관의 보전은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관광 등 농촌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환경 및 경관 보전 직접지불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2. 농산어촌 지역개발과 농산어촌 관광

농촌의 노령화·인구과소화, WTO체제 이후 농산물 시장개방 등 국내외의 어려움에 맞서 농업·농촌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 중에 있다. 농업·농촌이 재도약을 하고 농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소득의 감소분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원 개발이 필요한데 그 대표적인 대안 중 하나가 농촌관광이다.

농촌관광의 주요 수요자라 할 수 있는 도시민들의 소득향상, 주5일 근무제 정착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는 농촌관광 수요의 급속한 증대를 가져다 줄 것이며, 도시민들은 저렴한 관광비용으로 다양하고 유익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농촌관광을 지속적으로 즐기게 될 것이다.

도시민들이 농촌의 자연·환경·어메니티 등을 즐기기 위해 농촌을 찾아오고, 농촌은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민박·농산물 판매 등을 통해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농촌관광은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제 3 장

농산어촌 관광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

제 3 장 농산어촌 관광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

제1절 농산어촌 관광정책의 추진현황

1. 기본방향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농산어촌 관광정책의 기본방향은 농촌을, 도시민이 찾아와, 보고, 쉬고, 체험하고, 즐기고, 사가는 활력이 넘치는 복합산업공간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해 농촌지역에 활력을 부여하며, 국민의 다양한 여가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첫째, 농촌관광 공급기반의 지속적 확충 등 수용태세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촌관광마을을 정형화된 농촌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며, 경관조성 등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친환경농업 등 농업과 2·3차산업을 연계한 복합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둘째, 농촌관광인력의 육성으로 농촌관광 참여자의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하도록 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유치하고 컨설팅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마케팅강화를 통한 농촌관광 붐을 조성하는 것으로 농촌관광 포털사이트를 통한 정보제공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농·소·정 사업을 활용한 도·농교류를 활성화한다.

넷째,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며, 유관부처의 협조체제를 강화한다.

2. 추진현황

1) 농촌관광 포털사이트(www.greentour.or.kr)의 운영

「농촌관광 포털사이트」의 정보제공 기능을 개선하여 사이버상의 도농교류 공간으

로 구축하며, 회원제 운영을 강화하여 마일리지 적립, 이벤트참여 등 혜택을 부여하고,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메일발송 등 지속적인 수요를 관리한다. 체험후기 등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확충하고 콜센터를 운영하여 고객감동 및 만족정보를 제공하고 농촌관광시설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기호화(프로토콜)하여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도록 한다.

2) 홍보 및 마케팅 활동

농산어촌 관광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요자에게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크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사회적 영향력이 큰 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실시
 - 공익성을 지닌 오락 및 시사프로그램 등을 농촌관광 홍보에 적극 활용
 - 연예인·저명인사 등의 농촌체험, 마을가꾸기, '지도자의 하루' 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기획하여 방영
 - 도시소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메트로', '포커스' 등 무료신문에 농촌관광마을 등을 홍보
-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농촌체험학습 장려
 - 교과과정에 농촌체험학습 의무배정 추진
 - 초등학교 특별활동시간의 일정시간을 농촌체험학습으로 배정추진
 - 대도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농촌체험학습 시범학교를 지정·운영
 - 장학사, 교장, 교사 등을 대상으로 농촌관광마을 초청행사 정례개최
- 지자체나 농촌관광마을이 향토지적자산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마을행사 및 향토축제를 개발토록 유도
 - 마을테마를 발굴하여 관광상품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비용 지원
 - 개발한 향토축제를 향토산업화할 수 있도록 홍보 지원
 - 농촌관광포탈 추천관광코너 및 농업관련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 농촌관광 붐 조성 및 마을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농촌마을 가꾸기 경

진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농촌관광마을 선정시 우선 고려

○ 농촌관광에 대한 정례적인 이용자 반응조사 실시

- 도시민을 대상으로 2년마다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농촌관광 정책자료로 활용
- 농촌관광 경험내용, 관광빈도, 관광기간, 선호프로그램 등 다양한 수요자특성을 조사

○ 지역단위에서 농촌관광 주체간의 네트워크 구축

- 지역의 관광자원과 농촌체험프로그램을 결합하여 관광상품화할 수 있도록 유도

3) 농촌관광에 대한 교육 등 인적자원 육성

○ 마을이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등 마을내의 인적자원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은퇴자, 귀농자 등을 마을지도자로 육성

- 마을기획·운영, 주민지도방법 등 이론 및 현장교육을 장기과정으로 실시
- 도농교류센터가 ‘농촌관광대학’을 운영하여 마을지도자 등 전문가를 집중 육성

○ 담당공무원, 마을주민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농촌관광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찬회 등을 확대 실시
- 마을주민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서비스마인드, 안전 및 위생관리,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
- ‘농촌관광해설사’, ‘프로그램진행자’ 등 전문교육 실시

○ 한국농업전문학교에 농촌관광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장기적으로 농촌관광학과 신설 추진

- 농촌관광 교육과정의 경우 농촌관광마을 연수를 의무화하여 현장적응능력 제고
- 농과계 대학에서 운영중인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및 농업개발대학원 과정에 농촌관광전공을 개설할 경우 농촌관광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4) 도농교류센터의 설립·운영

- 농촌투자유치센터를 확대·개편하여 「도농교류센터」 설치·운영
 - 농업기반공사에 설치하여 홍보·교육·컨설팅 등을 담당할 전문가를 학계, 연구소 등으로부터 영입하여 조직을 보강
 - 웹사이트 운영,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등은 경쟁력있는 민간부문에 아웃소싱
- 농림부에 ‘도농교류위원회’를 설치하여 도농교류정책 자문
 - 마을지도자, 농협, 학계, 기업, 소비자대표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
- 지자체에서도 지역단위 도농교류센터를 설립 유도
 - 지자체, 지역대학 교수, 마을지도자, 농협, 지역상공인 등을 망라한 ‘지역도농교류협의회’를 구성·운영
- 기능 및 주요업무
 - 농촌관광 활성화 기능
 - ① 여가·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 ② 마을경영사례분석 등 농가·마을에 대한 경영지도·지원
 - ③ 그린투어리즘 관련 농가·마을·교육시설의 등록 및 인증서 발급 업무
 - ④ 지역의 관광마을, 농장, 레저시설 등을 연계한 네트워크구성 지원
 - ⑤ 농업인 교육 및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운용, 자격제도 관리
 - ⑥ 소비자·농업인 단체와의 제휴·조정
 - ⑦ 도시지역 주민의 농림어업·농산어촌체험 알선 및 지원
 - ⑧ 도시와 농산어촌 주민간의 자매결연
 - ⑨ 농촌관광에 대한 홍보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 개발)
 - 도시자본의 농촌투자유치 기능
 - ① 정보네트워크 구축·관리 등 교류정보제공 및 조사·분석
 - 도·농교류 웹사이트 운영(농촌자원 및 투자관련 D/B 관리)
 - ② 농촌투자 관련 정보제공, 상담 및 소개·알선, 컨설팅

- ③ 도시민의 농촌투자를 위한 캠페인 전개
 - 농촌에 내집갓기운동, 농촌방문의 해 등
- ④ 농촌투자유치 대상사업 발굴 및 제도개선
- ⑤ 농촌투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투자설명회 개최 등

3. 부처별 농산어촌 관광(체험마을)정책

1) 농림부 - 녹색농촌체험마을

(1) 목 적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추진 목적은 친환경 농업,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업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며,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휴양·체험공간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여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 거점으로 활용하는데 있다.

(2) 시책 및 추진방향

농촌관광을 추진하는 마을(“행정리, 자연마을, 마을연합”포함)에 대해 경관조성, 생활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도농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며, 주민합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도시민 방문객 유치하기 위한 마을공동시설과 농촌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정비된 마을을 조성하도록 한다. 자연경관, 농업, 주민의 생활문화 등 농촌의 특성을 살린 마을로 조성하여 유희·위락 위주의 기존 대중관광과는 차별화된 여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군 또는 시·도 차원의 행정지원 및 전문가의 자문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고, 농촌체험활동 서비스 제공은 물론, 농·특산물의 가공·판매, 농가숙박, 음식물판매 등 마을여건에 맞도록 농업과 2·3차 산업을 연계한 복합사업화를 유도한다.

(3) 근거법령

동사업의 근거법령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에 근거한다.

(4) 연도별 지원계획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의 연도별 지원계획은 다음<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02~'03	2004	2005	2006 (예산안)	2007~2013	
사업량(마을)	850	44	32	47	67	660	
사업비	계	170,000	8,800	6,400	9,400	13,440	131,960
	보 조	85,000	4,400	3,200	4,700	6,750	65,950
	용 자	-	-	-	-	-	-
	지방비	85,000	4,400	3,200	4,700	6,690	66,010
	자부담	-	-	-	-	-	-

(5)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내용

사업내용은 도시민 유치에 위해 필요한 마을 공동의 농촌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 조성, 생활편의시설, 기타 S/W관련사업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 생활편의시설 : 마을안길 정비, 마을회관 개보수, 정자, 주차장 등
 - 체험기반시설 : 체험농장 조성, 캠핑장, 산책로 등
 - 마을경관조성 : 화단·꽃길, 흙담·돌담 조성, 빈집정비 등
 - 기타 S/W관련사업 : 컨설팅, 설계비, 주민교육훈련, 팸플릿 제작 등
- 단 다음 사항의 경우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본 지침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 개인이나 개별 법인이 수익자가 되는 세 부사업은 제외
 - 토지·시설의 매입·임차비용, 관리·운영비용 등 : 다만, 개인이나 법인 등이 소유

하는 창고·축사 등을 마을에서 공동시설로 이용하고자 5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개조비용은 지원가능

- 농업생산기반을 포함한 농업용 시설, 농산물 가공 시설의 설치 : 다만, 농사체험을 위한 체험관찰코스 등 부대시설 설치지원 가능

추진 마을에 지역개발 및 생활여건개선사업(농촌마을종합개발·정주권개발·전원마을조성·농어촌생활용수사업 등) 등의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나. 사업기간 : 1~2년

다. 지원조건

지원금액은 마을당 2억원(국고50%, 지방비 50%) 수준에서 지원하며,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비의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2) 농촌진흥청 - 전통테마마을

(1) 목 적

농촌마을의 고유한 전통문화자원을 발굴, 도농간 교류촉진을 위한 자원으로 개발 활용함으로써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 활력화, 농촌 공동체문화를 함양한다.

(2) 시책 및 추진방향

2008년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시·군 당 1개소씩 16-개소를 시범적으로 조성하며, 그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 농촌·농업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식 확산, 국민적 공감대 조성을 위한 현장교육
- 마을 특성별 테마 발굴과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지원
- 농촌다운 생활환경과 자연경관, 어메니티의 유지 보전
- 사업성과 거양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사후관리
- 각종 시범요인의 적극적인 투입으로 농산어촌체험마을을 선도
-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중앙 및 지방 등 내·외부 네트워킹

3. 근거법령

동사업의 근거법령은 농촌진흥법 13조 제1항 및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에 근거하고 있다.

(4) 연도별 지원계획

농촌 전통테마마을 사업의 연도별 지원계획은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2> 농촌전통테마마을 지원계획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이후
사업량(마을)		9 9	18 27(9+18)	18 36(18+18)	21 40(18+21)	31 50(19+31)	63 157(31+126)
사 업 비	계			3,600	4,000	5,000	15,700
	보 조	450	1,350	1,800	2,000	2,520	7,850
	지방비	450	1,350	1,800	2,000	2,480	7,850

*'06년 사업량 50개소는 기존 19, 신규 31개소임(연차적 1억원씩 2년간 지원)

- 2005년 신규사업 21개소중 1개소(남제주)는 사업비 2억원 전액 지원
- 2006년 신활력 지역(무주 2개소)은 국비보조율 10% 상향 반영

(5) 사업시행 요령

○ 사업배경

WTO 출범이후 농업생산 소득기반 약화에 따라 농촌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고, 주5일 근무제·수업제 정착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로 농촌관광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 체결('92)로 전통지식의 보존을 위한 세계적인 관심이 증대되었고, 농촌의 공익적 가치,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과 관리능력의 부족이 나타나고 있다.

○ 사업방향

농업기술센터 등 지도기관의 기술지도로 마을 고유의 테마와 특성을 발굴·개발하여 도농교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 조성과 능력을 배양하며, 농촌전통테마마을 홍보 및 마케팅, 품질 향상 및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관련 시범사업의 우선 투입 및 연구결과의 적용을 통한 농촌관광의 선도 모델을 개발한다.

○ 사업내용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업자원을 포함한 마을 고유의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도농교류를 촉진하고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조성
- 마을 고유의 테마와 부존자원의 체계적 발굴
 - 볼거리, 먹을거리, 쓸거리, 체험거리, 놀거리, 살거리, 알거리 등
- 하드웨어 측면 : 체험·학습시설, 생활편의시설, 마을환경 정비, 경관 조성 등
- 소프트웨어 측면
 - 마을 고유의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매뉴얼 개발
 - 마을주민 교육 : 마을 경영 및 운영, 프로그램 실행방법, 시설물 관리, 농촌관광 마인드 및 서비스, 민박 운영, 마케팅 등
 - 소득자원 개발 : 친환경 농특산물, 농산물 가공, 테마상품, 캐릭터 등
 - 홍보·마케팅 : 홈페이지 운영관리, 도농교류 활동 지원, 이벤트 개최, 홍보물 발간 등
- 제시된 사업내용을 마을의 여건에 따라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 추진
 - 1단계(기반 구축) → 2단계(체계 확립) → 3단계(자립화·성장 및 발전)
- 추진마을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빈집활용 지원, 가정원에 생활화 등 농촌활력화 시범사업 및 새기술보급시범사업 지원의 우선순위 부여

○ 사업기간 : 1년

○ 사업량 : 50개소('05지정 : 19개소, '06 신규지정 : 31개소)

○ 지원조건

- 지원금액 : 마을당 1억원 수준에서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 전북 무주(2개소) : 국비 60%, 지방비 40%
 - ※ 지역여건과 마을의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비 추가지원 가능
- 지원대상
 -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추진의 합의가 된 마을로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마을로 선정된 마을
 - 농촌전통테마마을 선정 조건
 - 전체 20호 이상인 마을로서 전체 가구의 1/3 이상이 사업에 참여하는 마을
 - 농촌다운 마을경관과 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
 - 마을 고유의 전통문화자원이 있거나 개발할 수 있는 부존자원이 있어 타 지역과의 차별화와 특화가 가능한 마을
 - 전체 가구 수의 5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 추진 의지가 있는 마을
 - 사업을 추진하고 이끌어 나갈 지도자와 마을운영에 참여할 인적자원이 있으며 마을 내의 조직 활동이 활발한 마을
 - 농촌지도기관에서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투입되어 성과를 도출했던 마을

3) 산림청 - 산촌개발사업

(1) 목 적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 및 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낙후된 산촌을 살기좋은 마을로 개발함으로써 균형있는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산촌을 산림경영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데 있다.

(2) 시책 및 추진방향

동 사업은 산지·산림·산촌을 통합하는 개발방식으로 유도하며, 소득원개발, 정주환경개선, 전통문화계승, 도시와의 교류촉진 등 산촌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해 산촌의 진흥을 도모하며, 타 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한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고, 산림자원

을 활용한 소득증대, 임업의 산업화 가능성 제시를 통한 정체성있는 개발을 추진한다.

(3) 근거법령

동사업의 근거법령은 산림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그리고 산촌개발사업 예산편성 및 관리요령(산림청 예규 제504호)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한다.

(4) 연도별 지원계획

산촌개발 사업의 연도별 지원계획은 다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3> 산촌개발사업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95-'03까지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사 업 량		(93)	45 (15)	45 (10)	53 (20)	49 (15)
사 업 비	계	136,238	16,225	20,364	25,629	24,612
	보 조	87,984	11,634	14,539	18,279	17,178
	용 자	14,349	-	-	-	-
	지방비	33,905	4,591	5,825	7,350	7,434
	자부담	-	-	-	-	-

※ ()는 완료마을

(5) 사업시행요령

○ 사업내용

- 산림자원을 이용한 소득원 개발 등 생산기반조성과 주거환경개선을 포함한 생활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산촌을 구현하고, 산촌과 산촌주민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산림을 경영하게 하여 산림·산지·산촌의 종합개발을 추진한다.

○ 자금지원대상자 : 당해년도 개발대상 산촌마을

○ 지원단가 및 조건

- 마을조성 : 마을당 총사업비 1,400백만원(사업기간 2년)
 - 보 조 : 1,400백만원(보조율 : 국비 70%, 지방비 30%)
 - 사전설계 : 마을당 63백만원(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설계부대비 포함)

○ 지원시설의 종류

산촌개발사업에 있어서 지원시설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산촌개발사업 지원시설의 종류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세 부 사 업 내 용	사업비 배분기준
계			100%
보조금	생활환경개선	0 마을기반조성시설 - 상·하수도, 마을안길·진입로, 농어촌도로 등 0 문화 복지시설 - 마을회관(산림문화회관), 인터넷 등 정보통신시설의 설치, 주민공동휴식 시설 등 0 환경정화시설 - 오·폐수처리시설, 소하천(배수로) 정비 등 0 기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및 토목공사 등 - 가로수 및 가로등 정비, 절개지 복구, 사방, 제방 등 재해 방지시설 등	40%
	생산기반조성	0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 고품질 고소득 임산물 생산기반, 농로, 임산물 생산단지(재배단지) 등 0 산림산업시설 - 특산임산물 판매장·집하장, 공동저장·판매, 가공·이용시설, 0 산촌체험 및 녹색관광 시설 - 산촌체험숙박시설, 산림욕장, 임업및산촌체험시설, 등산로 등 산촌관광 기반 조성	60%

※ 비고 : 국고 보조금 배분기준은 마을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각 사업비의 2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4) 해양수산부 - 어촌체험마을

(1) 목 적

어업체험을 중심으로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등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어업인의 어업외 소득증대 및 어촌경제활성화를 도모하며, 도시인에게 어촌과의 교류확대 및 자연과 공생하는 휴식·여가공간을 제공한다.

(2) 사업 필요성

어촌의 대내외적인 어업여건 약화로 수산업 생산보다는 체험·휴양·관광 등 다원적 기능의 강화와 더불어 적극적인 어업외 소득원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체험중심의 어촌관광 기반조성으로 어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동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2년 ~ 2013년
- 총사업비 : 515억원 ('04년까지 기 투자액 : 155억원)
- 사업규모 : 103개소 ('04년까지 31개소 완료, '05년 17개소 시설)
- 사업종류 : 관광안내소, 진입로, 주차장, 샤워장, 화장실 등 관광기초기반시설
- 지원형태 : 지자체보조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45%, 자담 5%(개소당 5억원, 1개년사업)
- ※ '05년 균특회계로 이관

(4) 성 과

- 기존 어촌관광사업(숙박, 횃집 등)이 외지자본의 상업적 성격이었던 것에 비해 체험관광은 현지 어업인이 직접 어업현장에서 체험 중심으로 운영하므로 어촌지역의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가능하게 되었다.
- 경관감상 위주의 관광에서 벗어나 어업·생태·해양레크리에이션 체험 등을 통한 창조적인 여가활동으로 어촌지역과 교류가 확대되었다.

(5) 년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어촌체험마을 사업의 연도별 지원계획은 다음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5> 어촌체험마을사업 투자실적 및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총사업비	'01시범사업	'02년	'03년	'04년	'05년	'06이후
사업량		103	9	8	11	12	17	55
사업비	계	51,500	9,422	4,000	5,500	6,000	11,000	25,000
	보 조	25,750	4,711	2,000	2,750	3,000	5,500	12,500
	지방비	23,175	4,240	1,800	2,475	2,700	4,950	11,250
	자부담	2,575	471	200	275	300	550	1,250

※ '01년 시범사업은 총사업비에서 제외

5) 행정자치부 - 정보화마을

(1) 추진목적

정보화마을 사업은 정보화에 소외된 농어촌에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전자상거래 등 정보콘텐츠 구축을 통한 정보생활화로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공동체 의식 고취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다.

(2) 주요 사업내용

- 초고속인터넷망 인프라 구축
- PC 보급 등 가구별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 실시
- 각종 체험 · 관광사업

(3) 추진체계

- 사업주관 : 행정자치부
- 시행주체 : 사장, 군수

(4) 연도별 지원계획

정보화마을의 마을당 사업비는 약3.5억원 투입(국비 65%, 지방비 35%, 사업기간 1년)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279개마을을 지정하여 조성하고 있고, 2006-2012 기간 중 1,141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표 6> 정보화마을 연차별 추진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합계	2001~2002	2003	2004	2005	2006~2012
마을 수	소 계	1,420	103	88	70	18	1,141
	행정자치부	241	94	77	70	-	미정
	시도 자체	38	9	11		18	미정
예산 소계		104,843	37,065	31,779	26,872	9,107	미정
운영예산(국비)		7,484	380	1,193	2,372	3,539	미정
조성 예산	국비	62,000	2,800	20,000	14,000	5,568	미정
	지방비	35,739	9,065	10,606	10,500		미정

※ 운영예산은 정보화마을 총괄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위탁비 및 유지보수비

6) 체험마을 사업 종합

(1) 농산어촌 체험마을의 사업내용 및 목적

각 부처가 시행하고 있는 '마을단위 지역활성화'사업으로서의 체험마을 사업은 농산어촌 마을의 특성을 개발, 이를 기반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추진부처

체험마을 사업의 추진부서는 행정자치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5개 중앙행정기관이며, 각 부처는 독자적으로 체험마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3) 농산어촌 체험마을 수와 예산지원 현황

체험마을은 2013년까지 2,726개를 목표로 2005년까지 634개가 조성될 예정(2004년도까지 521개 조성완료)으로, 이 중에서 행정자치부의 정보화마을이 가장 많은 279개,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관광마을이 가장 적은 48개로 나타나고 있으며, 농림부의 녹색체험마을은 123개, 농촌진흥청의 농촌전통테마마을은 66개, 그리고 산림청의 산촌마을은 118개소가 추진되었다.

<표 7> 체험마을별 비교(1)

사업명		녹색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산촌마을
주무부처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사업기간		2002~2013	2002~2009	1995~2007
근거법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정비법	농업농촌기본법 농촌진흥법	산림기본법
마을 수	계획	850	160	193
	조성	123	66	118
마을당 사업비		2억원 (국비 50%)	2억원 (국비 50%)	14억원 (국비 70%)
사업기간		1년	2년	3년
집행예산		246	112	1,921
사업목적		-도시민의 농촌관광수요를 유치, 휴양·체험공간을 제공하여 농외소득증대	-농촌의 전통지식·문화자원을 발굴·활용한 테마마을 조성을 통해 농촌다운 마을환경조성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 및 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 -산촌생활환경개선
사업내용		-마을 공도의 농촌체험 기반시설 -마을경관조성 -생활편의시설 등을 지원	-체험 및 학습시설, 편의 시설, 마을환경정비 등 -체험프로그램 개발, 주민교육 및 컨설팅, 마을고유 캐릭터상품개발, 홍보 및 마케팅 등	-농·임산물 생산기반시설 과 생활환경개선 -다양한 산촌지원을 고려 한 특색있는 산촌개발 -산촌체험 등의 녹색관광 도입으로 농외소득 증대

주) 마을조성 수, 집행예산은 2005년도 포함

<표 8> 체험마을별 비교(2)

사업명		어촌체험관광마을	정보화마을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사업기간		2002~2009	2001~2012
근거법		농어촌정비법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마을 수	계획	103	1,420
	조성	48	279
마을당 사업비		5억원 (국비 50%)	3.5억원 (국비 65%)
사업기간		1년	1년
집행예산		265	1,052
사업목적		-어촌체험을 중심으로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 문화 등과 연계한 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어업인의 어업의 소득 증대	-농어촌에 초고속인터넷에 이용환경 조성 -전자상거래 등 정보 콘텐츠를 구축 -지역주민의 정보생활화와 실질적인 수익성 창출
사업내용		-관광안내소, 진입로, 주차장, 샤워장, 화장실 등 관광기반시설 조성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정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 생활화로 주민소득증대 -농촌체험관광기능강화

주) 마을조성 수, 집행예산은 2005년도 포함

체험마을의 마을당 사업비는 최저 2억원(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진청의 농촌전통테마마을)에서 14억원(산림청의 산촌마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정보화마을의 마을당 사업비는 3.5억원, 해수부의 어촌체험관광마을은 5억원임).

체험마을의 '05년까지의 총사업비는 3,596억원으로, 단위사업별로는 '95년부터 시작한 산림청의 산촌마을이 가장 많은 1,921억원, 농진청의 농촌전통테마마을이 가장 적은 112억원이며, 행정자치부의 정보화마을은 1,052억원,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은 246억원, 해수부의 어촌체험관광마을은 265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7) 농산어촌 체험마을 지원사업

(1)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¹⁸⁾

○ 목 적

-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을 통해 마을단위 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 도모
-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대표 등의 업무 부담 경감

○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산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무장 채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 마을, 사무장, 지자체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사무장은 직무수행계획에 따라 마을단위 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직무를 수행

○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5조

○ 연도별 지원계획(안)

<표 9> 사무장 채용사업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92~'93	2004년	2005년	2006년 (예산안)	2007년이후
사업량(명)		-	-	-	100	700
사 업 비	계	-	-	-	1,200	8,400
	보 조	-	-	-	600	4,200
	용 자	-	-	-	-	-
	지 방 비	-	-	-	480	3,360
	마을자부담	-	-	-	120	840

18) 농림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에 관한 통합지침』, 2006. 1

(2) 보험가입 지원사업¹⁹⁾

○ 목 적

- 농산어촌체험마을 단체보험지원을 통해 마을단위 농산어촌체험관광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 도모
- 농산어촌체험마을의 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마을에서 농촌체험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대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문여건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도시민과의 상호 신뢰 구축 효과
- 마을의 단체보험 지원을 통해 농산어촌체험마을 주민들의 사고발생 우려에 대한 불안감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어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에 대해 1년간 보험가입비의 일부를 지원
- 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농산어촌체험마을이 피보험자가 되어 농업기반공사와 보험회사간의 단체보험 형식으로 계약 체결

○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확대)

19) 농림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에 관한 통합지침』, 2006. 1

○ 연도별 지원계획(안)

<표 10> 보험가입 지원사업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92~'93	2004년	2005년	2006년 (예산안)	2007년이후
사업량(명)		-	-	-	65	-
사업비	계	-	-	-	65	-
	보 조	-	-	-	65	
	용 자	-	-	-	-	
	지 방 비 마을자부담	-	-	-	-	65

※ 마을 자부담비는 보험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지자체 형편에 따라 지방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4. 전라북도 체험마을 추진현황

전라북도의 체험마을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농림부의 녹색체험마을의 경우 18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연차별로 보면 도입초기인 2002년도에 2개소가 지정된 이후 2003년과 2004년 각각 4개소씩 지정되었고, 2005년에는 8개소가 지정되었다.

지역별로는 전주, 익산, 군산, 김제 등 시부 지역을 제외한 10개 시군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지정되어 있다<표 11참조>.

다음으로 농촌진흥청의 전통테마마을은 전라북도 내에 2002년 완주군에 1개소가 도입된 이래 2005년까지 모두 9개소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06년 8개소가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표 12 참조)이다.

산림청의 산촌개발사업은 전체적으로 24개소가 지정되었으며, 2005년 말까지 완료 18개소, 사업시행 6개소(1차조성 3, 2차조성 3개)가 추진되고 있으며, 2006년도 3개지역에서 사업시행(설계 3)이 이루어지고 있다<표 14 참조>. 사업초기에는 하드웨어 중심의 주거환경개선 및 생산기반조성사업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소득원개발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산림·산지·산촌의 종합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마을 사업은 3개소가 지정되었으며, 고창 2개소, 부안 1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갯벌학습체험 및 체험안내센터 등을 조성(표 13)하여 운영 중이다.

정보화마을은 2002년 1차 사업으로 2개소를 지정한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하여 2005년말까지 30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다<표 15 참조>. 초기에는 정보화 확산을 위한 PC 보급 등이 이루어졌으나, 사업이 진행되면서 정보화 기기를 운영하여 on-line 직거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다양한 농촌지역의 자원을 이용하여 체험마을로서 운영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표 11> 전라북도 녹색농촌체험마을 현황

단위: 개소

선정 년도	주소 및 마을명	관광자원 및 마을특색
계	18개 마을	
2002 (2)	진안군 동향면 능금리 능길	친환경농산물 가공(배, 사과, 흑염소 등)
	순창군 구림면 안정리 안정	순창고추장 체험, 회문산 위치
2003 (4)	완주군 경천면 경천리 오복	경천곶감, 청산농원과 연계추진
	진안군 주천면 무릉리 무릉	약초재배, 운일암 반일암 위치
	장수군 번암면 논곡리 성암	백두대간, 흥부마을
	임실군 임실읍 금성리 금성노티	농가형 치즈공장, 친환경농산물 생산
2004 (4)	남원시 아영면 봉대리 봉대	백두대간, 봉화산철쭉제 등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 진도환경	친환경농업마을(벼, 배 등)
	고창군 공음면 선동리 선산	테마파크지원(도), 학원농원(청보리축제)
	부안군 보안면 우동리 우신	반계유적지, 우동당산제 등
2005 (8)	정읍시 산내면 능곡리 신기	운주산·감투봉해맞이,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정읍시 산외면 오공리 공동	김동수가옥(민속자료), 하청사지, 금사정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 매동	실상사, 황산대첩비, 뱀사골, 달궁계곡등
	진안군 백운면 동창리 동신	영모정, 백운동계곡, 유허비, 매사냥(전영태)
	무주군 적상면 괴목리 치목	적상산 및 산성, 적상산성사고(조선실록)
	장수군 천천면 연평리 신전	와룡산 자연학습원, 천천천의 수려한 자연경관
	부안군 하서면 청호리 삼현	이순신장군 왜관거리, 고희장군사당, 청호지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운호	신선봉과 계곡, 운호저수지,곰소갯벌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

<표 12> 전라북도 전통테마마을 현황

단위 : 개소

지정연도	주소 및 마을명	추진테마
계	9개소	
2002 (1)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구재 디지털산내골마을	디지털 생태체험, 자전거하이킹, 농사체험, 곤충해설
2003 (4)	군산시 나포면 주곡리 원주곡 뜰아름마을	왕골공예, 철새관찰, 야생활공예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월평/용계 달오름마을	기체험(명상,다도,요가), 약선/보양음식체험, 찜질방
	장수군 계남면 장안리 도깨비잔치마을	김치체험, 도깨비잔치
	부안군 진서면 입암리 내소사 동구마을	돌담, 산수유
2004 (1)	진안군 안천면 백화리 상리 맑은시암 배실마을	압화, 야생화체험, 감자삼국, 구절초술, 향토음식체험등
2005 (3)	남원시 보절면 도룡리 용평/안평 추어마을	황도체험, 친환경농사체험, 산타기체험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용산 춘향허브마을	허브베게, 허브따기, 도토리음식체험 등
	김제시 부량면 금강리 전포 지평선 곁두리마을	지평선·일출일몰, 벽골제농경문화탐방, 황토천연염색, 쌀음식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

<표 13> 전라북도 어촌체험마을 현황

단위 : 개소

사업연도	주소 및 마을명	추진테마
계	3개소	
2002 (1)	고창군 심원면 하전리 하전 어촌체험마을	갯벌체험학습장, 체험어장 조성, 종합안내센터
2003 (1)	고창군 심원면 하전리 만돌 어촌체험마을	갯벌체험학습장, 체험어장 조성, 종합안내센터
2004 (1)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도청 어촌체험마을	체험안내센터, 주차장 및 소공원, 수변데크 및 침목도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

<표 14> 전라북도 산촌개발마을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주소 및 마을명	비고
합계	24개소	
1995	장수군 천천면 와룡리 중상	완료
1997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용산	완료
	순창군 구림면 안정리 안정	완료
1998	무주군 적상면 방이동리 이동	완료
	정읍시 산외면 종산리 원바실	완료
	완주군 운주면 금당리 용계	"
1999	고창군 고수면 은사리 신기	"
	남원시 주천면 용궁리 용궁	완료
2000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서창	"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 원신암	"
	임실군 성수면 성수리 수천	완료
2001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성곡	"
	순창군 쌍치면 학산리 부정	"
	김제시 금산면 선동리 산수	완료
2002	장수군 변암면 동화리 상동	"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호암	"
2003	임실군 관촌면 상월리	"
	순창군 복흥면 대방리	"
2004	장수군 계남면 장안리 원장안	2차
	정읍시 칠보면 백암리 원백암	2차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마조	2차
2005	장수군 계북면 임평리 백암	1차
	남원시 산동면 대상리 상산	1차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마동	1차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

<표 15> 전라북도 정보화마을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사업연도	주소 및 마을명	마을 특산품
계	30개소	
2002	남원시 운봉읍 동하마을	화훼, 목기, 철쭉제
	완주군 봉동읍 서두마을	생강, 화훼, 포도
2003	전주시 원동 원동마을	배, 복숭아, 감
	정읍시 내장상동 내장산마을	분재, 복분자, 민박
	김제시 용지면 황토마을	황토포도, 감자, 배
	완주군 용진면 봉서골마을	상항버섯, 화훼, 포도
	임실군 관촌면 사선녀마을	고추, 배, 장미, 후리지아
	순창군 순창읍 전통고추장마을	고추장, 장아찌
	군산시 성산면 깎치말마을	주박청외장아찌
2004	익산시 망성면 어량마을	게르마늄쌀, 참외, 날씬이고구마
	정읍시 신내면 옥정호정정마을	야생화, 꽃감, 매실, 밤, 대추, 표고
	김제시 금구면 외갓집마을	원배, 생녹용, 단호박
	완주군 동상면 동상꽃감마을	동상꽃감, 고로쇠, 감식초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골마을	흑돼지, 도라지, 두릅, 인삼
	장수군 장수읍 별혜는마을	사과, 표고, 애기시래기
	순창군 구림면 물통골마을	느타리버섯, 상추, 표고
	고창군 심원면 하전갯벌마을	갯벌체험, 비지락, 장어
2005	전주시 평화2동 학전참깨쌀마을	참깨쌀, 주말농장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섬마을	바다 낚시, 멸치
	익산시 여산면 두여마을	마국수
	정읍시 정우면 대정유기농녹색마을	친환경 작물
	남원시 금지면 용전마을	감자, 하우스 작물
	김제시 성덕면 남포들녘마을	남포문고, 쌀
	완주군 운주면 완창마을	버섯
	진안군 동향면 천반산구리고을	사과, 수박
	장수군 장계면 좌도풍물동동마을	좌도풍물, 기시오가피, 오미자
	임실군 삼계면 박사골마을	산머루,
	순창군 쌍치면 산내들마을	추령천, 전봉준장군 피체지, 복분자
	고창군 아산면 성기복분자마을	복분자
	부안군 줄포면 후촌갈대숲마을	갈대숲, 토마피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

제2절 농산어촌 체험마을사업의 평가와 문제점

1. 중앙정부 차원의 기존 농촌관광 정책의 평가

기존의 중앙정부(특히 농림부 중심)가 추진한 농촌 관광자원 개발은 ① 시설 공급에 치중하여 농촌지역 고유의 장점과 매력을 자원화하는데 소홀, ② 농촌 주민이 실질적 주체가 되지 못하고, 주체가 되었다 하더라도 기업가정신이 부족하여 부실 경영을 초래, ③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지속성 있는 네트워크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에서 농외소득 증대와 농촌지역 활성화라는 의의를 살리는데는 한계를 보였다.

그러나 동시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기대할 수 있었다. ① 기존 농촌관광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은 IMF 등의 경제 사정으로 농촌관광 시장이 충분하게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나, 경제사정 호전과 함께 그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가능성이 높으며, ② 기 조성된 관광농원 등의 물리적 시설물은 농촌지역에서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인프라 역할을 하고, ③ 그간 어려움을 겪으면서 축적한 경영 노하우, 이미 만들어진 조직, 교육 및 홍보 실적 등은 농촌관광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기 위한 기반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관광농원협회에서 자체 추진하고 있는 등급제, 경영주 홈페이지 작성, 협회 주관 교육, 팜스테이 농가(관광농원, 민박, 팜스테이 농가 중 일부는 중복)들의 자체 모임활동 등은 농촌관광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경영주의 경영능력 제고에 상당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농산어촌 체험마을사업의 문제점

1) 체험마을 사업의 정책적 문제

(1) 분산개발로 인한 비효율성과 비형평성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들이 각 부처의 정책목표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농촌지역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농촌 전체로는 투자의 중복성과 사업간 연계성 부족에 따른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고 농산어촌 지역을 분할하여 관리함에 따른

농산어촌 지역정책의 통합성도 확보하기 곤란하다.

(2) 하향적 추진체계 및 사업내용의 편중

대부분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업은 사업내용, 사업방식, 추진일정, 사업지구선정 등이 중앙정부의 획일적 또는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특성, 창의력, 개발수요 등이 반영될 여지가 거의 없다.

또한 거의 모든 개발사업이 생활기반시설을 비롯한 물적 개발사업에 치중되어 있으며, 지역 고유의 환경, 경관, 문화, 향토자산 등과 같은 특성자원을 살리는 장소관측, 이벤트 등 소프트한 비물리적 개발은 간과되기 쉬운 문제도 있다.

(3) 계획수립 및 집행주체의 다원화와 중복성

체험마을 사업의 계획수립 및 집행주체가 다원화되어 있고 유사계획 및 사업이 중복되어 시행되는 반면, 수직적·수평적 연계가 부족하여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통합적 지역개발 추진이 곤란하다.

부처간은 물론 부처 내에서도 지나치게 세분화된 개발사업들이 상호 연계성이 결여된 채 추진되다보니 사업이 시행되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유사한 사업이라도 사업방식, 사업일정, 투자재원 등을 서로 달리하는 파편화된 개발(fragmented development)이 불가피하다.

(4) 획일적 지원으로 인한 지역간 형평성 왜곡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업에 대한 국가지원이 지방정부 부담을 의무화하는 매칭펀드 방식(matching fund)을 채택하고 있어 지방재정이 열악한 농촌지역 자치단체로서는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고 그로 인해 더욱 낙후되는 모순이 발생하기도 한다.

(5) 농산어촌체험마을 개발 역량 미흡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수립과 추진은 계획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지방의 창의력과

지역주민들의 참여 폭을 좁혀왔으며, 자주적·내발적 개발능력과 지도력을 상실하게 하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각 체험마을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에 있어서도 지역의 대학 및 소규모 연구단체, 컨설팅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인력 및 노하우 등에 있어 한계를 노정하고 있어 체계적인 농산어촌 체험마을 계획수립 및 구현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마련과 실시가 요구된다.

(6) 종합적인 추진주체의 미흡

광역자치단체 혹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관련 사업의 종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기초자치단체에 중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 독자적인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전달되는 중앙정부의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입장에 서있다.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의 기능은 중앙부처와 매우 유사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중앙부처별로 유사한 사업이 기획되면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집행과정에서도 각각 중앙부처의 계선에 있는 부처가 유사사업을 분담하여 시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유사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중앙부처가 다르면 기초자치단체 내에서조차 사업이 분절된 채 추진되는 문제가 있다.

2) 체험마을 사업운영상의 문제

전라북도내 체험마을을 대상으로 한 사례조사 결과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업내용의 유사

각 체험마을에 있어서 사업내용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체험기반시설, 체험프로그램 등이 마을간 비슷하게 조성되어 도시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동인(動因) 및 경쟁력이 결여되어 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어촌체험마을 등은 공통적으

로 외부관광객을 유치하고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정보화마을 사업의 일부인 체험관광 상품의 경우도 도시민의 농촌체험·관광 수요와 더불어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농림부를 비롯한 5개 부처에서 각 단위사업에 대한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 사업에 관한 통합지침」²⁰⁾을 마련하여 각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동 지침은 행정자치부의 정보화마을이 제외되어 있어 실질적 통합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체험마을을 사업 간의 특화, 연계 및 조정을 통한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2) 지역주민의 참여 부족

현재 체험마을 운영은 몇몇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가의 빈방이나 빈집을 이용하여 도시방문객을 유인하는 민박 및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의 운영은 소수의만이 참여하고 있다. 농촌마을 주변의 환경 및 경관정비 등은 도시방문객 유치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체험마을 내 대다수 농가의 참여가 없이는 요원한 상황이다.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연구 및 세미나, 워크숍 등이 개최되고 있다. 일부의 마을지도자들은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여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린투어리즘이 농촌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대안임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반주민들의 경우는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여 동 사업에 대한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다.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대책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3) 체험마을 간 네트워크 미흡

대부분의 체험마을은 지자체 등 행정기관으로부터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외부 전

20) 농림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에 관한 통합지침』, 2006. 1

문가들로부터는 자문을 받고 있으나, 체험마을 간의 정보교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체험마을 운영에 대한 선진기법 등의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

체험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농가민박과 직거래, 농촌체험 등에 대한 운영방법 및 창업정보 등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마을 지도자들은 체험마을 간 정보의 공유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체험마을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체험프로그램 및 민박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도시방문객에 대한 마케팅 등에 있어서 체계적인 운용방법을 기해야 할 것이다.

(4) 전문 운영자 부재

체험마을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전적으로 마을 리더의 운영능력에 달려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체험마을의 경우 생업에 종사하는 마을이장 혹은 일부의 리더 등이 봉사하는 자세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사업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5) 체험마을 사업에 대한 종합적 점검체계 부재

개별 부처가 지원하는 체험마을 지원사업은 사업의 선정에서부터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전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사업 결과에 대한 정기적·체계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체험마을 사업의 life cycle에 따른 종합적 평가 체제가 미흡한 실정이며, 한편으로 체험마을 사업은 각 마을에 대한 일률적 지원에 그치고 있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성과에 따른 유인책 등 선택과 집중에 따른 지원방식이 필요한 상태다.

제3절 외국의 그린투어리즘 추진사례²¹⁾

1. 프랑스의 그린투어리즘 발전과정과 관련 조직

프랑스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바캉스 문화가 정착되었고, 여기에 농촌의 건축물이나 문화를 지키려는 사회운동이 결합되어 그린투어리즘이 탄생하였고, 프랑스에는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 일찍부터 설립되어 활동해 왔다.

<표 16> 프랑스의 그린투어리즘 관련 조직현황

조직명	주요 사업 내용
농업회의소 “농업·관광협회”	농업회의소에서 의뢰받은 농업시찰 단체여행을 기획하는 조직으로 1952년에 설립되었으며, 1981년부터는 '농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Bienvenue a la Ferme)'라는 공동 상표 네트워크를 구성, 가업 농가를 중심으로 민박사업 추진
“지트 드 프랑스” 전국연맹	농촌의 주택을 보수·유지하고, 농촌인구의 유출을 방지하며, 저렴한 요금으로 양질의 숙박시설을 제공하고자 1955년에 설립된 프랑스의 전국 민박조직으로서 현재까지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음
“가족 휴가촌 협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농촌의 숙박시설을 제공하고자 1959년에 설립
“룻지”전국연맹	전쟁으로 황폐해진 농촌의 소규모 호텔을 부흥하기 위해 1949년에 발족
“농촌관광진흥센터(TER)”	농촌관광의 진흥을 위해 지트 드 프랑스 전국연맹과 룻지 전국연맹, 가족 휴가촌 협회, 농업·관광협회, 각도 관광위원회 전국연맹이 1971년 창설. 현재 협회에는 관련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은행, 관광·레저 관련기관 등 30여개 조직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관광부, 농업부, EU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조사와 연구활동을 하고, 농촌관광 관련조직 간의 정보교환 및 정책 제안 활동을 벌이고 있음

자료 : 강신경 외 역, 『녹색관광』, 일신사, 1997. pp.75-77

프랑스는 1950년대부터 정부와 민간 조직이 합심하여 농촌의 관광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프랑스의 그린투어리즘 활동은 전국 최대의 민박 조직인 “지트 드 프랑스(Gite

21) 박시현 외, 외국의 농촌관광정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박시현 외, 우리나라 농촌관광 발전 방향 및 방안, 한국농촌관광연구원, 2003. pp.117-155, 박시현외,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개발모형 정립 및 실용화 방안, 농림부, 2002. pp.8-20 송두범 외,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활성화방안, 충남발전연구원, 2002. pp.57-73, 강신경 외 역, 전개서, 1997

de France)”전국연맹의 민박사업과 농업회의소에서 공동 상표 네트워크로 운영하는 “농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Bienvenue a la Ferme)”사업이 대표적이다.

지트 전국연맹은 1955년에 정부의 보조를 받아 처음 설립되었는데, 전국의 농촌 민박을 체계화하고 단일 조직망으로 연결하였다.

<표 17> “지트 드 프랑스”의 민박 유형 구분

민박 유형	서비스 내용
독채 대여형 (Gîte rural)	가족이나 소규모 단체가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농가를 독채로 대여
객실 대여형 (Chambre d'Hotes)	주로 아침 식사와 객실을 제공, 외국인 이용객 비중이 높음
아동용 민박 (Gîte d'Enfants)	농가에서 4세 이상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방학중에 운영(연령별로 유형이 세분)
농가 캠핑장 (Camping la Ferme)	농가의 부지 또는 삼림 등에 캠핑장을 마련(매우 저렴한 가격임)
간이·단체민박 (Gîte d'Etappe·de Groupe)	윗층은 객실, 아래층에는 공동 편의시설을 둔 저가형 민박

자료 : 강신경 외 역, 『녹색관광』, 일신사, 1997. p.95

지트 연맹이 체계화한 민박 유형은 전체 5가지 유형으로 독채대여형과 객실 대여형, 아동 민박, 농가 캠핑, 간이 민박 등이 있다. 이들 민박 농가는 지트 연맹이 정한 등급 기준에 따라 최저 1등급에서 최고 4등급까지 등급을 보리의 수로 표시하는데, 등급심사는 지트 연맹 도협회 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유효기간은 5년이며, 등급 인정은 각 위원별로 환경과 옥외설비, 건물의 상태, 실내설비 및 실내장식을 평가하여 기준 점수에 도달할 경우에만 부여한다.

농업회의소에서 운영하는 그린투어리즘은 지트 연맹의 민박사업에 비해 훨씬 내용이 다양하다. 이 사업은 1981년부터 “농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Bienvenue a la ferme)”라는 공동상표운동으로 시작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농업회의소가 별도로 정한 등급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농가숙박, 식사, 특산품, 승마, 어린이농장체험, 농업체험, 사냥, 가족단위체류, 캠핑 등 9개의 유형이 있으며, 농가별로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18> 네트워크화된 농촌관광 시설에 대한 브랜드화 사례

네트워크	조직과 현황	관광상품의 유형 (품질현장 적용)
농업회의소의 농업과 관광 Service Agriculture et Tourism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개 지역 농업회의소 ○91개 도 농업회의소 ○Bienvenue à la ferm 브랜드화 ○품질현장(charte de qualite)에 따라 숙박 및 식사, 여가활동 9개의 관광상품 제공 ○3,000여 농장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Ferme auberge (농가숙박) Ferme de découverte (자연체험) Ferme équestre (승마) Ferme pédagogique (아동들을 위한 농업체험) Ferme de sejour (4일 이상 장기체류) Ferme de chase (사냥) Camping en ferme daccueil (농장부근 캠핑) Produits de la ferme (농가특산물 직판) Goûter à la ferme (농가음식 식도락)
농가숙박 Accueil Pays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에 6개의 지역협회조직 ○22개 도에 도단위 협회조직 ○품질현장에 따라 7개의 관광상품 제공 ○300여 농가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Gîte paysan (농가민박) Table paysanne (농가식당) Chambre paysanne (농가숙소 이용) Camping et aire paysans (농가부근 캠핑) Accueil denfants à la ferme (아동들에 대한 농장개방) Relais paysan (gîte de groupe) (복수 농가 체험)
프랑스 농촌관광 숙소협회 Fédération Nationale des Gîtes de Fr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별로 97개에 이르는 농촌관광숙소 네트워크가 조직화됨 ○Gîtes de France라는 상표로 브랜드화 ○품질현장에 따라 8개의 관광상품 제공 ○프랑스 전국에 43천개의 농촌관광숙소 운영, 이 중에서 13여개는 농민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Gîte rural Chambre dhôtes Chambre avec tables dhôtes Gîte détape, gîte de séjour Campings et aires naturelles de camping Chalêts-loisirs Gîtes denfants Gîtes pour adolescents Gîtes à theme : 낚시, 눈, 승마 Chambres et gîtes de niveau

자료 : 프랑스 농업회의소 중앙회, 2002.

2. 독일의 그린투어리즘 발전과정과 관련조직

독일의 그린투어리즘은 프랑스에 비해 다소 늦은 60년대 후반 바이에른 주에서 발전되기 시작하였으며, 60년대 이전에도 농촌에서 휴가를 보내는 일은 있었지만, 이는 농가가 관광객을 위해 객실을 별도로 마련한 것이 아니고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며칠동안 재워주는 형태였다. 60년대 후반에 이르러 독일의 남부지역인 바이에른 주에서 농업을 관광에 접목시킨 정책이 처음 시도되었다. 바이에른 주는 오스트리아에 인접한 알프스의 산악지역으로서 농업조건이 불리함에 따라 소규모 가족농을 중심으로 산비탈의 낙농·축산과 관광을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와 같이 농업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농업과 관광을 접목시키려는 독일의 그린

투어리즘 구상은 인접한 바덴 주, 뷔르템베르크 주 등으로 확산되고 많은 농가가 참여하게 되어 오늘날 '농가에서 휴가를'이라는 그린투어리즘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독일의 그린투어리즘 관련 조직으로는 독일 농업협회(DLG)와 식량농업부 정보서비스협회(AID), 독일 농민연맹, 농업신용은행 등이 있으며, 독일 농업협회는 1965년부터 농가의 민박사업에 관심을 갖고 민박 상품의 규격과 품질을 통일시켜 오늘날의 DLG 인증 민박을 육성해 왔고, 식량농업부의 정보서비스협회는 민박 경영 농가를 위해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부의 보조정책 등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민박 농가를 지원하여 왔다.

독일의 그린투어리즘은 프랑스에 비해 소박하며 농가에서 조용하게 휴가를 보내려는 이용객을 위주로 숙박과 레저형이 발달되어 있으며, 농촌의 숙박시설로는 객실형 민박(Privatzimmer)과 별채형 민박(Ferienwohnungen), 여관(Gästehaus), 하숙(Pension), 간이·특급 호텔, 유스 호스텔, 야영장 등이 제공되고 있으며, 레저시설로는 공공시설인 다목적 온천시설(Cure house)과 향토박물관, 음악당 등이 있으며, 농가의 사유 시설로 승마장, 자동차 야영장(Camping Car) 등을 갖추고 있다.

한편, 독일농업협회(DLG)와 식량농업부 정보서비스협회(AID)는 「농가에서 휴가를」 보내자는 농촌 민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이용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협회가 품질을 인증한 농가만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19> DLG의 품질보증 대상 민박과 평가 항목

대상 숙박 시설	주요 평가 항목
공 통	안전성, 농장의 전체적 인상, 농장 고유의 레크레이션 설비, 주위 환경
객실형 민박	객실, 라운지 대여부분, 급식시설, 화장실
별채형 민박, 리조트 하우스	침실, 거실, 주방, 화장실
야영장	주위 환경, 휴게소, 취사장, 세탁장, 화장실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는 아동용 숙박시설	침실, 라운지, 놀이터, 급식·위생시설

자료 : 강신경 외 역, 『녹색관광』, 일신사, 1997. p.154

DLG의 품질보증마크는 국립특허기관(RAL)이 인정한 'DLG점수'마크에 관한 기본 규칙에 따라 각 지역의 담당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부여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심사 위원회는 농업상담소, 농업종사자, 농협, 지방자치단체, 지역진흥단체, 관광협회, 금융기관, 호텔, 음식점협회, 소비자단체의 대표들로서 최고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중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정하고 있다. 품질 보증은 5가지 민박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각 시설의 용도에 따라 평가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3. 영국의 그린투어리즘의 발전과정과 관련 조직

영국은 70년대 유럽대륙에서 그린투어리즘을 받아들여 영국 고유의 농촌다움을 보전하려는 그린투어리즘으로 발전시켰다.

당시 유럽에서는 리조트형 관광 개발의 폐해가 알려지면서 대형으로 상업화된 관광개발을 지양하고 지역의 생활이나 환경을 배려하는 관광이 모색되었으며, 이는 1947년부터 '도시농촌계획법'을 제정하고 '농촌다움의 보호'를 중시해온 영국의 전통에 일치되는 것으로 영국에서는 농촌다움을 해치는 리조트형 그린투어리즘을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 농가의 민박사업은 60년대부터 당시 농산물의 과잉으로 농가 소득이 줄어들게 되자 일부 농가에서 경영을 다각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모색되었다.

70년대 후반에 이르러 영국에서는 '휴가사업(holiday business)'이라는 이름으로 그린투어리즘이 활성화되었는데, 이때 그린투어리즘 추진 조직으로 농장휴가협회(Farm Holiday Bureau)와 관련 정부 기관이 참여하게 되었다.

농장휴가협회는 종전의 자발적인 농가 민박을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공동 마케팅 활동을 벌이기 위해 1983년에 설립되었고, 이 협회는 2000년 Farm Stay UK로 개편하여 활동하며, 회원들의 회비와 안내서 판매수입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활동으로는 회원에 대한 자문이나, 정보제공(연 4회 뉴스레터 발간, 각종 홍보물 제작), 웹사이트 제공, 대형슈퍼체인과 연계하여 농산물 판매 및 스티커 배부, 회원 농가들의 연수회 개최 등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은 농촌휴양지계획(Country Access Scheme)과 농촌경관관리인제도(Countryside Stewardship Scheme)를 시행하여 그린투어리즘에 참여하는 농가에게 농촌경관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농촌휴양지계획은 의무적으

로 휴경되는 농지에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경우 국가가 농가에게 보상하는 제도로서 1994년에 도입하였고, 농촌경관 관리인 제도는 전통적인 농촌경관을 복원 또는 보전하여 휴양시설로 이용하고자 농가와 계약을 맺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1991년부터 시행하였다.

영국의 그린투어리즘 프로그램은 소규모 민박을 중심으로 숙박형과 식사형이 발달되어 있으며, 대부분 민박농가는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시골의 생활이나 문화, 역사적 유산, 풍경, 마을 주민의 환대 등을 관광 상품화하고 있다. 민박의 운영 형태는 농가 일손을 줄이기 위해 침대(Bed)와 아침 식사(Breakfast)만을 제공하는 B&B형 민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편, 영국에서도 Farm Stay UK가 전국 민박농가를 공동 네트워크로 조직하고, 공동상표를 사용하며 민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4. 일본의 그린투어리즘 발전과정과 관련 조직

일본의 그린투어리즘은 지역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60년대부터 전개되었으며, 일본은 과소화되어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 차원에서 스키장과 같은 리조트 시설을 설립하고 농촌 관광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70년대 후반부터는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잃어버린 그 무엇’, ‘사라져가는 그 무엇’을 찾고자 하는 노스텔지아 관광이 유행하게 되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농촌에 대한 향수였다. 80년대에 이르러 일본은 전국적으로 ‘지역만들기(무라오코시)’ 운동을 전개하며 본격적으로 농촌 관광사업인 그린투어리즘을 육성하였다.

일본의 무라오코시 운동에서는 지역의 농업과 전통문화, 특산물을 중심으로 전통 문화 마을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그린 투어리즘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농촌의 전통 문화를 관광 상품화하여 크게 성공한 마을로는 시라카와 무라(白川村)가 있는데, 이 마을은 연중 100만명에 이르는 관광객과 50억엔이 넘는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다.

일본의 그린투어리즘 관련 조직으로는 농협을 비롯하여 관광 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중 농협에서는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 주민에게 농업과 관광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지역 관광협회,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한 농가에게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관광 안내자(guider)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의 전통·

문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그린투어리즘 프로그램은 지역의 자원 특성에 따라 특산물, 전통문화, 자연 자원 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역의 특산물은 버섯이나 산채, 과일 등의 음식물과 칠기, 도자기 등의 공예품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 또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 있다. 전통문화 상품으로는 절이나 신사, 지역축제, 민속공예, 전설, 떡치기, 전통 요리 등이 관광객에게 제공되고 있고, 자연자원으로는 온천이나 산, 강, 산림, 동물, 새, 반딧불, 맑은 공기나 녹음, 자연의 소리, 깨끗한 물 등 거의 모든 자연 자원을 상품화하고 있다.

이밖에도 일본에는 그린투어리즘 이용객을 위한 농가의 숙박시설로 농가 민박(Farm Inn)과 자연관찰형 민박(Nature Inn)²²⁾이 있다. 농가 민박은 원래 일반 농가에 잠시 머무르는 홈 스테이(Home stay) 또는 팜 스테이(Farm stay)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농가의 일부를 숙박용으로 개조한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농사체험 학습이 강조되면서 고교생의 수학여행에서도 농가 민박을 이용하는 등 후세대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20> 일본의 그린투어리즘 프로그램

활용자원	프 로 그 램
특산물	버섯, 산채, 과일 등 음식물 칠기, 도자기 등 공예품 버섯따기, 요리 시식, 도자기 박물관 등 이벤트 상품
전통문화	절, 신사, 지역축제, 민속공예, 전설, 떡치기, 전통 요리, 증기기관차, 에도(江戸)시대 상점가 재현 도심에서 볼 수 없는 생활 민속 볼거리 제공
자연자원	온천, 산, 강, 산림, 동물, 새, 반딧불, 맑은 공기, 녹음, 자연의 소리, 깨끗한 물, 해녀, 취미농장, 주말농장 등

자료 : 문옥표, “일본농촌의 관광개발과 지역활성화”, 농촌사회 제8집, 1998. pp.80-81

5. 외국 사례의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유럽과 일본의 그린투어리즘 발전과정을 통해 정책의 특징 및 시사

22) 자연관찰 민박은 조류를 관찰할 수 있는 농산촌의 숙박시설 가운데 일본 자연보호협회에 등록된 것으로 그렇게 많지 않음

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40여년 이상의 농촌관광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국가적으로 농촌관광을 추진한 것은 198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농촌관광은 농업구조정책에서 소외된 소규모 농가의 농업경영 다각화 방안으로 정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체로 농업과 농촌을 유지하면서 관광을 도입하고 있으며, 환경보전, 방문객의 체험, 다양한 형태의 농가민박 및 농가레스토랑의 운영을 통한 농외소득의 획득을 확대하고 있으며, 농촌의 전통문화와 농업을 이용한 관광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조건불리지역의 농업정책,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존 노력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다. 농촌관광을 위해 농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체계적인 홍보와 마케팅, 시설정비 지원관련 조직을 통한 평가와 품질관리, 세계상의 우대조치 등의 구체적인 수단이 취해지고 있다.

유럽과 달리 일본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교류라는 측면에서 농촌관광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일본 농촌관광의 핵심은 체험중심의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활동과 지역을 기반으로 한 도농교류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제 4 장

농산어촌 체험마을 종합관리방안

제 4 장 농산어촌 체험마을 종합관리방안

제1절 농산어촌 체험마을 운영 활성화방안

정부는 농촌관광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을 도시민이 찾아와, 보고, 쉬고, 체험하고, 즐기고, 사가는 활력이 넘치는 복합공간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경관보전 등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농촌관광의 수요 증대에 대비하며, 체험마을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1. 주민참여 확대

농산어촌 지역에 관광을 도입함에 있어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직은 마을주민들의 농촌관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농촌관광을 도입하더라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마을지도자 및 마을지도자를 도와 사업을 추진할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1) 지역주민의 정책 참여 의의

지역주민의 참여는 농산어촌 관광 프로그램의 효과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자원과 지원을 농촌개발에 투입재(input)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개발의 수단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참여를 통해 농산어촌 관광 프로그램은 지역의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자원에 잘 적응하고, 도입된 외부자원 등이 좀더 나은 보조적 역할을 하고 지역자원의 동원을 도울 수 있다.

한편 지역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적 혹은 정치적 영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고, 그것은 농촌지역의 의존성 혹은 주변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간주된다. 업그레이드된 지역의 리더십, 진취성과 혁신적인 행동 문화와 같은 사회적 생산물을 창조하는 것, 혹은 지역주민들이 합심하여 당면한 위기

와 기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향상 등이 발전의 목표가 된다.

지역 참여의 대표성을 보증하고 상향식 개발방식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하나는 지역주민이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체험프로그램 개발과정에 의미 있게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들이 그들 지역의 사업을 성취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의 습득 그리고 태도를 강화하는 것 즉,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capacity-building)가 필요하다. 농촌지역의 역량강화는 “농촌지역의 물적·인적 자원의 기반을 한 단계 높이려는 점진적이며 복잡한 과정”이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역량강화 대상은 농촌지역에 사는 개인과 집단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는 기관 등이 포함되고, 개인보다는 지역주민 전체의 역량강화가 중요하다.

2) 지역주민의 정책 참여기회 확대방안

(1) 농산어촌체험마을 사업 설명기회의 확대와 내실화

지역분권과 지역균형개발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농정의 분권화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주도·주민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과 농촌지역개발정책 추진도 불가피해질 것이므로 지역주민의 농정참여를 질적·양적으로 확산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의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농산어촌체험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2) 지역주민과 행정간 상호이해의 확대

지역주민의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업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지역주민(리더)과 정책당국 간의 근본적인 신뢰부족에 있다. 지역주민(민간)에 대한 공무원(행정)의 부정적 인식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지역주민의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업 참여를 위한 출발은 지역주민(민간)과 농정담당자가 서로를 신뢰하고 동반자로 인식하는데 있으며, 상호 신

회의 구축과 인식 전환을 위한 쌍방의 노력이 필요하다.

(3) 행정과 민간 협력으로의 인식 전환

지역주민(민간)의 농산어촌 관광정책 참여에 대한 논의나 민·관 협력사업을 논의할 때, 행정 쪽에서는 정부가 지역주민(민간)을 지원한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그 동안 정부와 지역주민(민간)간에 어느 정도의 지원·수혜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데 지역주민의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업 참여를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되어왔던 ‘지원’과 ‘원조’라는 의식에서 ‘협력’으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관(행정)과 민(지역주민)의 관계가 통치주체와 통치대상으로서의 관계였기 때문에 관과 민의 대립과 갈등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제는 관과 민의 협력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제 민간의 위상은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통치 파트너 위치에 있다.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한 상호협력이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상호 책임감도 증대시킬 수 있다.

3) 다양한 민·관 공동사업의 모색

(1) 교육 및 연수의 공동개최

지역주민(단체)에 대한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해 나아감으로써 상호이해의 증진과 좀더 내실 있는 교육과 연수가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와 같은 재정지원 일변도에서 교육 및 연수의 공동개최와 정보 제공 등으로 지원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행정과 민간의 관계가 단순한 지원·수혜관계가 아니라 민·관협력으로 관계변화를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역주민의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업참여를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스스로의 자질향상과 역량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농정담당자는 지역주민의 농산어촌체험마을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연수기회를 제공해 나아가야 한다. 이때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연수의 시행과정은 물론이고 교육·연수계획의 수립과정

에서부터 민과 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주민의 학습수요조사로서의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연수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출발이며, 이것이 곧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방안 중 하나이다.

(2) 농촌지도사업의 공동추진

민·관 협력 차원에서 지역 내 농민단체 및 선도 농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도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이를 모델로 지역 내의 다양한 분야로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주민의 농정참여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농정당국 스스로도 지도사업을 새롭게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선적으로 지역 내 선도 독농가를 농촌지도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위촉(초빙)지도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분야별로 특성과 지도력을 갖춘 우수 농업인을 선정하고, 이를 위촉(초빙)지도사로 임명하여 이들로 하여금 관련 프로그램이나 체험마을 경영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지역 내 마을을 지도케 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는 농업·농촌의 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지역 내 민간의 잠재적 지도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농산어촌관광 리더 육성 및 농촌주민 교육

농산어촌관광 등 도농교류 관련 인력을 육성하고 관련 분야 종사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의 확충이 시급히 필요하다. 농촌관광이나 도농교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여 정부의 지원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농촌관광 경영자와 마을 주민 및 관련 기관 종사자가 이에 대해 준비되지 않으면 사업의 성공이 어렵다. 특히 농촌관광과 같은 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는 주민참여형 농촌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인적 자원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는 특징이 있다. 농촌 주민 자신들도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의 육성 지원을 바라고 있다.

성공적으로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강력한 리더쉽과 사업추진 의지를 가진 리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마을에서 조직된 운영위원회나 부서별로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하게 될 때 성공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체험마을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기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마을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체험마을의 리더는 마을을 이끄는 리더쉽 뿐만 아니라 체험프로그램의 운영과 진행에 있어서도 분야별로 양성되어야 한다. 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하는 인적구성과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³⁾.

첫째 지역지도자는 전문지도자, 체험지도자, 지역안내인 등이 있다. 지역지도자는 농림어업의 소개 및 진행, 지역관광의 알선, 역사문화의 소개, 지역정보의 발신 및 수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서 전문지도자는 기능보유자, 분야별 전문가로서 그 지역에서는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다. 대개 노인층이 많지만 농업경영인 후계자와 같이 젊은 층이 될 수도 있다. 전문지도자는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

체험지도자는 체험학습 전 과정을 통하여 지도를 진행한다. 물론 전문지식도 필요하겠지만 다방면에 풍부한 지적 소유자가 필요하다. 중요한 역할은 손님과 전문지도자와의 교량역할을 한다. 그 지역대표로서 지역문화를 소개할 때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지도자가 겸임을 할 수도 있다.

지역안내자는 지역을 소개하는 사람으로서 체험학습 전 과정을 지도하지는 않는다. 체험지도자와 현장지도자 역할을 보조자로서 본격적인 체험지도는 하지 않고 손님들의 안내에 충실하며 풍부한 지식과 현지 사정에 밝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기획지도자는 농촌관광에 있어서 지역관광 활동의 기회·조정·정비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지역의 홍보체험 메뉴개발, 사업계획의 수립, 고객의 접대, 사업의 지도, 조언, 권유, 설명을 행한다. 따라서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풍부한 지식과 판단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기획지도자는 종합기획자와 현지조정자가 있다.

종합기획자는 사업계획의 수립, 지역의 홍보, 체험메뉴의 개발, 사업의 지도, 조언, 권유, 설명,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현지조정자는 종합기획자가 입안한 사업계획

23) 이인배 외, 「충청남도 농촌체험관광 실태와 활성화방안 연구 - 체험프로그램 과제의 도출을 중심으로」, 충남발전연구원, 2005

을 실시단계에 있어서 현지사정을 조정하고 고객의 접대, 사고발생시 안전대책(후송), 추진업무의 기록(사진, 비디오) 등을 담당한다.

농촌관광 관련 지역리더 인력 육성 및 농촌주민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1) 농산어촌관광 관련 리더의 육성 및 교육

(1) 농산어촌 관광 및 농촌개발 전문인력의 육성

농촌관광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농촌개발 관련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지역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현재 다양한 농촌개발과 관련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개 전문가를 초청하는 나열식, 강의식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새로운 개념이나 사업을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나, 농민들이 농촌지역개발의 주체로서 역량을 갖추는 데에는 미흡하고, 다양한 교육내용을 접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특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교육내용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내용의 질이 떨어지거나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운영하지 않을 경우 시장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열식,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농촌현장에서 토론과 견학, 실습을 통해 농민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원을 새롭게 평가하고 그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과 역량을 갖추게 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을 시범적으로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즉 리더의 육성방향에 따라 대상자를 구분하고, 대상자에 따라 교과과정을 달리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젊은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과과정이나 학과를 전문대학 등에 설치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도 있다. 광역자치단체 단위와 시·군 단위, 현장 단위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교육 프로그램 지원

① 사업개요

농촌개발과 농촌관광에 관련한 일반적인 지식, 성공사례 등 일반적인 교육과 농업 경영, 농장설계, 마을설계, 농촌관광 가이드 방법, 문화 해설사 등 전문적인 교육을 농민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지원한다.

② 교육내용

농촌개발, 농촌관광, 주민참여형 사업조직, 농촌 비즈니스모델, 농촌관광 가이드 방법, 관광해설, 농장 및 마을 설계, 지역주민 지도방법 등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방안

민간단체, 농촌관련 연구소, 컨설팅 업체 등 다양한 위탁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피교육자들에게 교육비를 보조하는 방법으로 지원, 피교육생 모집은 전라북도와 시군(지자체)으로 나누어 개별적인 신청과 지자체를 통한 단체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며 교육기관의 실적과 내용을 평가하여 검증한다.

○ 시·군 단위의 교육프로그램 지원

① 사업개요

지역 농촌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구체적인 사업모델을 구상하며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농촌지도자, 농촌활동가, 지역비즈니스 참여자 등을 교육하되 이러한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지역도농교류센터)이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교육내용

지역개발, 농촌관광 일반, 자გი지역 가치 발견하기, 지역 비즈니스모델 만들기, 사업 계획 작성하기 등을 교육한다.

③ 운영방안

지자체가 스스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고 시군 단위에서 사업계획에 적합하게 피교육자를 선정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장중심형 농촌지도자 양성 시범 프로그램 개발

① 사업의 개요

농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활용하여 농촌개발의 구체적인 대안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지원한다.

② 운영방법

농촌관광, 농촌개발의 역량이 갖추어진 지자체와 교육기관이 파트너십을 맺고 교육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심사하여 시범사업비를 지원, 2007년 이후에 농촌관광 사업이 활발한 시군을 대상으로 도별 1개 시군에 지원한다.

(2) 지역개발 (가칭)로컬매니저 조직 및 파견

농촌지역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부족하여 상향식, 내생적 발전전략이 성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의 농업, 관광, 지역개발, 환경관련 전공 출신자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우리나라 농촌에 파견하고 지역에서 일정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조직을 지역개발 로컬매니저라 명명하고 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이러한 역할을 지자체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는 지역활동가 그룹과 함께 지역의 자원과 지역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며 지자체, 농민,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조정하는 “에니메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 준공무원적 신분을 가지고 농산어촌 현장에서 관광 및 지역개발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젊은 인력을 농촌에 파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²⁴⁾ 에서 제 3세계에 지역개발을 위해 우리나라

24) 한국국제협력단은 그 동안 선진국의 원조와 지원으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혜택을 환원한다는 취지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원조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1991년 설립한 정부기관이다. 전문인력, 봉사단, 프로젝트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전문인력을 개발도상국에 파견한다(<http://www.koica.go.kr>).

의 젊은 인력을 파견하는 방법을 사례로 검토할 수 있다.

파견인력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인사관리는 전라북도에서 담당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농림부를 통해 확보하는 것으로 한다. 초기에는 농촌관광마을을 중심으로 마을단위 도농교류 업무를 수행하고 마을, 농가 등 다양한 농촌자원을 엮어내어 농촌활성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인 농촌의 일꾼으로 만든다.

지역개발 로컬매니저 양성교육은 6개월 과정으로 하되 전라북도 및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농촌관광이나 지역개발 사업이 활발한 시·군 혹은 몇몇의 시군을 권역으로 묶어 시범적으로 권역단위에 1명씩 교육 후 파견하고, 파견 후 소속은 전라북도로 하여 신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일정비용의 활동비를 보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농촌관광 업무 담당자 교육

농촌관광 업무 담당자는 지자체 공무원을 포함하여 농업기반공사,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농촌관광과 관련된 여러 농촌기관 종사자가 포함된다. 이들은 자신의 주 담당업무가 농촌관광이 아닐지라도, 농촌관광에 대한 안내자와 홍보자의 역할을 담당할 마음가짐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농촌관광 관련사업의 종류와 사업내용, 소속 지역의 농촌관광 명소 등에 대해 안내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고객으로부터 전화나 인터넷 혹은 방문에 의해 농촌관광과 관련하여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대해 친절하고 명확하게 답변하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며, 자신이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소개해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농촌관광 관련 기관 종사자는 이와 같은 고객의 문의에 답변하는 데에서 나아가 기회가 주어질 때면 적극적으로 지역의 관광을 안내하고, 알리고, 홍보하는 지역관광 가이드 및 홍보요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농촌관광 안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과 일반 직원들의 직무교육 과정에 농촌관광 부분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관광이나 도농교류 관련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자는 농촌관광 경영에 대하여 컨설팅하고 기술자문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심화 과정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2) 농촌 주민 교육방안의 마련

(1) 농촌관광 경영자 교육

농촌관광 경영자는 농촌관광 관련 시설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얻고 경영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감수하는 당사자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농촌관광의 핵심이며, 이들에 대한 농촌관광 교육은 바로 이들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도시민 등 농촌관광객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누리는 데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농촌관광 경영자라고 해서 농촌관광이나 경영 등에 대한 이해수준이나 지식보유 수준이나 이들이 처한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적 요구(educational needs)가 모두 동일하지 않으므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담당기관은 이들을 대상으로 농촌관광 및 경영에 대한 일반사항을 교육하는 것 외에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하고 지도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육내용에는 상황분석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관광 경영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마케팅 기술 및 기법에 관한 교육, 국내외 선진지 사례에 관한 교육 등이 포함되는데, 교육과정(curriculum)을 편성할 때에는 교육대상자의 수준과 특성 및 요구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구성토록 한다. 이러한 교육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① 농촌관광시설 및 설비 개선방안
- ② 영접, 접대, 환송 등 농촌관광서비스 향상 방안
- ③ 농촌관광시설 외부공간의 개선방안
- ④ 농촌관광 체험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방안
- ⑤ 관광시설 홍보 및 마케팅 방법
- ⑥ 종합적인 관광경영개선방안
- ⑦ 관광경영여건 변화 분석기법
- ⑧ 주변관광요소 활용방안 및 주변관광지 안내방법
- ⑨ 기타 체험지도자 육성 교육, 지역관광 가이드 교육 등

(2) 농촌주민 교육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등을 통해 정부에서 공공성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 기반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주민들 사이에는 정부에서 보조로 지원해 주니까 받고 보자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 마을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올바른가, 그리고 마을의 입지여건과 특성을 고려할 때 어떤 투자가 바람직한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마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지도자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정부의 농촌투자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관광개발사업에 대한 홍보과정에서 마을개발과 투자계획수립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직 농촌관광에 참여하지 않은 지역사회 주민은 창업준비자 및 예비창업자 범주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이들 중 장래에 농촌관광에 대한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창업준비교육이나 예비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농촌마을에 농촌관광이 발전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 지도자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를 감안하여 지역 지도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농촌관광에 대한 교육은 물론 리더십 개발과 주민참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농촌에 대한 이미지는 관광 경영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서비스 정신이 어느 수준인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촌관광 경영자와 창업 준비자 외에 지역 지도자 및 일반 주민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농촌 마을 지도자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농지관리위원, 쌀전업농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에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에 대한 교육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이 도농교류에 대한 기초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3) 교육과정별 교육 방안

한편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등 관련 리더 및 농촌주민 전체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육과정(curriculum)별 교육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농촌관광 일반과정(입문과정)

-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과 농촌관광 사업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함
-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교재는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는 등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는 데 주안점을 둠
- ② 농촌관광 마을지도자 과정
 - 마을에서 농촌관광 사업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지도자 및 농촌관광 사업 담당 공무원 등 교육
- ③ 농촌관광교류 전문가 과정
 - 지도자과정 및 이와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이수한 마을 지도자 및 담당공무원 등 교육
- ④ 농촌관광 경영자 과정
 -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 교육 수준이나 교육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세부 과정을 개설함
 -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발표 등 토론식 교육에 주안점을 둠
- ⑤ 농촌관광 특별강좌
 - 정규과정에서 다루기 어려운 내용이나,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 과목을 선정하여 특별강좌로 운영

3. 어메니티 자원 활용 및 도농교류 활동 도입

1) 어메니티 자원 활용방안

농산어촌관광과 연계하고 각종 규제에 의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는 농촌 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각종 농촌 어메니티 사업에 자원을 활용하는 지원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²⁵⁾.

첫째, 농촌 어메니티 보존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인센티브의 제공이 필요하다 농촌사회가 갖고 있는 어메니티를 파악해서 이를 보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

25) 조상필,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한 농촌활성화방안, 전남광주발전연구원, 2004. pp. 129 - 132

을 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에서는 각종 보조금을 통한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금제도를 만들어 지원할 기금도 조성하고 있다. 즉 영국에서는 어메니티에 대한 배타성을 설정하여 접근요금·이용요금·통행세를 부과하여 국립공원과 역사적 유적지의 자금조달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계단식 논보존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농촌관광차원에서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진흥청의 농촌전통테마마을,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마을의 3가지 사업에 약74억(2003년 기준)원의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함평의 나비축제나 평창의 효석문화제 등 기타 어메니티사업은 지자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선진국에 비해 재정지원이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농촌어메니티 보전에 따른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농촌 어메니티 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이외에도 농촌활성화 지원도 이제는 하드웨어 위주의 획일적이이 분산적 지원을 탈피하고 근본적이고 종합적이며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즉 안정적인 정주기반구축을 위해 생활인프라 확충과 서비스네트워크의 구축에 지원되어야 한다. 그리고 산업의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농림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장소적 특성을 활용한 어메니티자원의 상품화, 농림업과 어메니티 클러스터화를 구축하는데도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농촌 어메니티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모색에 따른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하여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시에 형성되어 있는 어메니티시장의 특성을 파악하여 관련상품의 판촉대상, 차별화방식, 수익모델 등 마케팅전략을 수립하고 기획 및 홍보방식을 모색하여 야한다. 또한 상품의 어메니티속성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미지 소스를 발굴하고 이미지 계획을 작성하는 것도필요하다. 특히 지속적 홍보효과를 위해 중장기적 PR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광고매체와 PR대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셋째, 어메니티 시장촉진과 경영지원이 요구된다. 행정은 어메니티시장을 촉진하고 민간의 어메니티경영을 지원해야 한다. 지원책으로는 향토지적재산권 등록을 강력히 추진하여 주민의 재산권활용에 관한 행정지원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비경제적인 인센티브 부여방법도 도입되어야 한다. 이는 어메니티 증진을 위하여 규제를 당한 지역에 대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시켜 주는 방안이다. 이러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지역여건에 따른 적절한 시설 및 도농교류 활동 도입

농촌관광을 통한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여건에 따라 자원의 적절한 활용 즉,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농촌에서는 다양한 농촌관광활동이 가능하며, 이러한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설은 농촌 어머니터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도입되어야 한다.

농림부는 농촌에서 전원생활을 원하는 도시민에게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수요자 기호에 맞춘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체재형 주말농원, 은퇴농장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전원주거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통해 지역특성을 살려 소권역 단위로 마을을개발하여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고 쾌적함을 증진시키며, 농촌을 농촌주민은 물론 도시민이 생활하기에도 불편함이 없는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도·농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들이 농촌마을과의 자매결연을 선도하고 민간기업 등의 동참을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경련을 중심으로 1社1村 운동 및 1校 1村 운동 등을 적극 전개해야 할 것이다.

4. 마케팅 및 상호연계 시스템 구축

농산어촌 체험활동에 대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며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도농교류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① 농촌관광 또는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책자 발간, ② 지역관광 지도 제작, 보급 확대, ③ TV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 프로그램 기획, ④ 이벤트성 경진대회 개최, ⑤ 농촌관광 홈페이지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홍보, ⑥ 농촌관광에 관한 사항의 신문 연재 추진 등이 필요하다.

농업이나 농촌에 대한 홍보는 대개 과거 농촌에 대한 향수, 그리움, 낭만적인 전원생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구체적인 도농교류, 농촌관광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은

매우 부족하며 도시자본 유치는 더욱 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을 전제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시민들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홍보방법이 마련되어야 하며, 한편으로는 수요를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고 환경교육으로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농촌관광과 도농교류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마케팅 방안을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도시소비자를 위한 홍보, 마케팅

(1) 공익광고의 활용

농촌관광이나 도농교류에 대한 홍보는 공익광고 같이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향한 광고의 형태가 주를 이루는데 공익광고를 만드는 주체인 공익광고협회가 준정부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공익광고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정부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광고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실시한 '2000년도 공익 광고 평가조사'에 따르면 공익광고의 접촉도 특히, 공익광고협회의 공익광고에 대한 인지도는 77.7%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익광고가 사회 문제 제시 기능과 그 해결 기능에 대해 대중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공익광고의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다.

공익광고의 접촉 매체로는 TV가 단연 압도적(98.6%)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신문(41.1%), 지하철(26.3%), 라디오(12.9%), 극장(12.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익광고의 집행매체 중 강화되어야 할 매체 일순위도 TV(응답자의 87.2%)로 나타나고 있어 TV광고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표현방식에 있어서 상황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광고를 보는 즉시 한 번쯤 돌이켜 볼 수 있도록 표현되어야 하며, 이성적이기 보다는 감성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광고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익광고협회의 심의위원 중의 한명이 농업, 농촌분야를 대표할 수 있게 하여 최소 년 1회 이상 공익광고를 제작, 방영케 한다.

(2) 공익성을 지닌 오락프로그램 활용

최근에 방영되고 있는 공익성 오락프로그램은 그동안 대중매체에서 다루지 않았던 사회의 소외된 부분을 찾아내어 알리고 도움을 주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인기 연예인들을 동원하여 오락성을 가미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일반 시청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문화방송의 ‘느낌표’에서 어린이 도서관 지어주기, 불우한 이웃을 위한 ‘러브하우스’, 한국방송공사의 ‘체험 삶의 현장’ 등이 있으며 공익성과 오락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런 공익성 오락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단기성 프로젝트 혹은 이벤트 형식으로 제작팀이 농촌마을에 직접 찾아가 그 마을의 어메니티를 살리거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마을주민들과 수행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둘째, 게임형식을 빌려 두 팀으로 나뉘어 한 농촌마을에서 각기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그 마을의 어메니티를 얼마나 잘 살리면서 과업 수행을 하는지 평가하여 승자를 가려 상품으로 그 지역의 특산물을 주는 형식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 도농교류센터에서 협찬업체를 섭외하여 제작 지원하고 FTA 협약을 계기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3) 다큐멘터리 형식의 마을가꾸기 전 과정 제작

오락프로그램은 특성상 단기적인 프로젝트만을 다루기 때문에 마을이 바뀌는 과정 전체를 보여주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마을 선정부터 컨설팅 과정, 계획수립, 실행, 완성에 이르는 마을가꾸기 전과정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 방영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 작업은 농촌주민과 제작진뿐 아니라 지자체 혹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협조를 해야 하며 특히 그 지역과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체, 조직,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개입되어야 가능하다.

다큐멘터리의 특성상 자칫 지루해지기 쉽기 때문에 얼마나 시청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꾸며지느냐가 중요한 과제이다. 조금은 과장된 홍보, 예를 들어 대통

령이 격려차 방문하는 모습을 다큐멘터리에 담으면서 대통령과 농촌주민들과의 진솔한 대화 — 농촌의 어려운 상황, 농촌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등 — 를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농촌지역에 희망이 있음을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대개 이러한 프로그램은 방송사에서 의주를 받는 제작사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후원으로 제작사가 기획하여 방송국의 편성을 따내고 FTA 체결 등으로 농민단체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대기업을 협찬을 받아서 추진한다.

(4) 농촌드라마 시나리오 공모 및 제작 지원

기존의 농촌드라마는 주로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지만 농촌의 현실이나 새로운 농촌의 발전방향을 제시해주는 데에는 미흡하였다. 농촌의 새로운 것을 보여주기 보다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도시인들이 몰랐던 농촌의 아름다움이나 어메니티를 부각시키면서 새로운 농촌의 발전노력, 미래 비전 등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몇 년전 한 방송사에서 박경리씨의 “토지” 드라마가 방영되었는데 이 드라마의 제작을 맡은 제작사가 드라마 세트장을 드라마 세트용이 아니라 영구적인 관람, 체험용으로 조성하고 이를 드라마를 촬영하는 농촌의 활성화에 이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제작사, 방송국, 정부가 함께 이제까지와 다른 농촌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드라마의 파급효과는 클 것이다. 새로운 농촌드라마는 공영방송에서 방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시나리오 공모는 후원하고 공영방송에서 공모하며 드라마 제작은 대기업을 협찬을 받아 제작하여 공영방송에서 방영하도록 한다.

(5) 농촌관광 투어버스, 투어기차 운행

도농교류센터에서 농촌관광버스를 제작하여 시범운영, 주말에는 인근의 농촌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도시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평일에는 단체 체험여행에 활용한다. 철도청과 협조하여 기차로 가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여행코스를 개발하고 이에 이용할 수 있는 기차를 제작한다. 중앙도농교류센터가 직접 운영하기 보다는 버스나 기차 제작에 최소의 비용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개발, 운영, 관리의 경험이 있는 외부 단체, 업체에 위탁한다. 버스나 기차에서는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알리는 각종 홍보자료를 비치하거나 배포하고 농업과 농촌에 관한 영화도 상영한다.

(6) 도시농업의 활성화

도시농업은 도시인에게 농업을 근거리에서 체험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농업과 농촌에 대한 홍보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도시농업은 도시녹지관리, 폐기물관리, 빈민구제 등의 부수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07년에는 도시농업 활성화 시범 도시를 선정하여 배란다. 옥상, 공공용지, 자투리 땅 등에서 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시민운동을 활성화하고 경작에 필요한 자재, 도구, 종자 등의 지원과 영농교육을 실시한다.

2) 안정적 수요창출 기반 조성

청소년들은 잠재적인 농촌관광의 수요자, 농촌자본투자의 투자자이며 농촌 인적 잠재력의 후보군임에도 불구하고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거의 없다. 도농교류사업은 청소년들에게는 농촌현장을 이해하고 농업, 농촌, 농민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정기적인 도농교류에 참여하고 그린투어리즘을 체험하게 함으로서 도농교류 수요를 확대할 수 있고 청소년들의 그린투어리즘 체험은 청소년 가족으로 연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청소년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초, 중, 고 교과과정에 정규과정으로 포함시키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도농교류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지원방안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여 수학여행, 졸업여행 등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도농교류, 그린투어리즘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집단적으로 청소년들이 농촌에서 도농교류와 체험프로그램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물과 프로그램의 안전성 확보,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제도의 확립, 청소년 체험 위탁업체의 육성 등이 필요하다. 또한 자매결연 사업을 활성화하여 농촌과 도시 간에 직접적인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농촌관광, 농산물 판매, 도시자본 유치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방문객이 찾지 않는 체험마을은 아무리 훌륭한 시설을 한다고 해도 초기투자에 비해 수익상환은 늦어지게 마련이다. 그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이고, 자체 관리

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어 그 시설은 오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험마을 스스로의 홍보보다 지역의 풍부한 자연자원과 화제를 일으키는 이벤트, 그리고 그와 결합된 새로운 홍보전략이 필요하다.²⁶⁾

첫째, 이제 그린투어리즘의 추진 주체는 지역의 자치단체와 관련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일상적인 지역 홍보지, 관광안내책자, 팸플렛 등 시·군의 공공기관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연자원과 관광농원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신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치단체를 비롯한 민간기업과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로 주변의 휴게소나 기차역, 버스터미널, 은행, 여행사 등으로 홍보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입소문’에 의한 홍보방법을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단은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서, 비록 다소간 시일이 소요될지 모르나 이미 기존의 체험마을에서 가장 많이 애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의 선행 해결조건은 시설의 특성화와 차별화, 예를 들면 농산물의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싼 점, 마을의 경관이 수려하고, 종사자의 친절성, 그리고 음식 및 시설의 특이성 등을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강한 이미지를 심음으로써 소문이 주위로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²⁷⁾ 물론, 표적시장(Target market)은 특별한 종류의 상품을 능동적으로 찾는 것이므로, 계절이나 시기에 따라 효과적인 상품의 개발을 통해 시장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용절감을 위해 개인보다는 단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이는 연합회를 통해 안내책자, 팸플렛 등을 공동으로 발간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발간비를, 지원하는 운영자금의 일부에 추가하여 용자·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시에 있는 자매결연 아파트단지나 기업체에 개별적으로 발송·배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다.

26) 이호철, 『그린투어리즘에 의한 지역사회개발 방안』, 『농촌사회』 10, 2000.

27) 서정교, 『향토음식(점) 및 특산식품의 개발과 육성』, 대구경북개발연구원, 1997.

제2절 농산어촌 체험마을 관리방안

1. 통합적 정책추진 시스템 도입

1) 정책목표간의 통합

농산어촌 체험마을을 비롯한 농촌 지역개발의 장기적 목적이 지속가능한 농촌사회의 실현에 있다고 한다면 농촌 지역개발과 관련된 제반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농촌지역개발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하여야 하고, 따라서 관련정책이 서로 통합적으로 추진될 때 그 정책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 즉 농촌은 생활공간, 경제활동(노동)공간, 환경 및 경관공간으로서 지속가능하여야 하며, 농산어촌 관광 및 지역개발은 지역주민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가능하다.

2) 정책수단간 통합

다양한 농산어촌 관광개발 수단을 제시하고 전북지역 내의 각 지역이 자신에 맞는 정책수단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이때 채택된 정책수단들은 상호충돌을 피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 하에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는 농산어촌 관광 및 지역개발 사업, F-Tour 사업 등 다양한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시도하여야 한다.

3) 계획과 평가시스템 도입

농산어촌 체험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정책들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안정적인 재정을 바탕으로 다년간 계획에 따라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는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 및 부처별 시행계획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며, 전라북도는 도내 농산어촌체험마을의 운영실태 및 향후 추진에 있어서의 실천적 계획을 수립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경제성, 효율성, 유효성 등의 관점에서 엄정하게 평가하고 그것을 새로운 기본계획의 수립에 반영하는 피드백체제가 도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후평가제도의 도입 등 정책평가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 관리조직의 일원화

1) 부서간 정책 통합관리

부서간 정책 통합은 현행 중앙부처 중심의 종적인 행정체제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부처할거주의는 매우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농산어촌 관광정책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개발 사업의 종합적인 관리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부서간 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이 요구된다.

종적 행정체제, 관료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산어촌 관광정책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개발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장할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거나 현재의 농림수산부에 농촌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농촌지역개발계획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기대할 수 있다.

즉 농업농촌의 다양한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부서별, 기능별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조직인 TFT(Task Force Team)이나 CFT(Cross Functional Team) 등을 구성하여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농촌관광을 비롯한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농업농촌 환경은 지금보다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고객 니즈 및 환경변화의 속도는 훨씬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영 환경의 변화로 생기는 추가적인 업무나 신속·정확하게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들을 모두 라인 부서에서 수행하게 될 때 부서간의 업무 중복이나 체험마을의 지역간 형평성 왜곡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소지가 크다. 이에 따라 CFT나 TFT 등 프로젝트 조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역할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한시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TFT 또는 CFT보다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제로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 데, 일례로 전라남도의 경우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행복마을과를 신설하고, 농산어촌 관광 및 지역개발사업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표 21> 전라남도 행복마을과 직제 및 담당 업무

담 당	주 요 업 무
행복마을담당	행복마을 조성종합계획 면단위 개발 및 마을정비사업 주민숙원사업,온천,광고물관리 행복마을관련 농어촌실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행복마을관련 각종 공모사업 추진 과 예산 및 회계 업무
균형발전담당	국가균형발전업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관리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소도읍 개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운영 사항 지역혁신박람회 관련 사항
농어촌개발담당	농어촌정비종합계획수립 및 신규시책개발 어촌종합개발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 오지개발사업 추진 농어촌정주권 종합개발사업추진
한옥사업담당	한옥보급정책수립 및 시행 농어촌 한옥신축 및 개.보수 지원 전원마을 조성사업 농어촌주택정비 등 주거환경개선,빈집관리
주택건축담당	건축행정간실화,건축법운용 주택관리업무,공동주택,주거복지업무 추진 건축사지도에 관항사항,건축물 통계업무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재해주택복구

2) 권역별 광역 도농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최근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마을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하지

만 농촌체험관광의 한정된 수요 속에서 체험마을의 양적 증가나 마을간 경쟁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체험마을들은 상호간에 어떻게 협력해서 농촌체험관광의 수요를 확대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협력해야 한다.

상호협력 방안의 하나로 조직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체험마을 간의 조직화를 통해 도시소비자에게 농촌과 체험관광을 소개하여 수요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고, 체험마을 간의 시설, 프로그램, 농산물, 인력 등을 교류하고 연결망을 구축함으로써 다양하고 풍부한 상품 구색을 갖추어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의 하나가 광역도농교류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동일 생활권 및 동일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권역 내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광역 도농교류센터를 설치하여 농산어촌 체험마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비용절감을 도모하고 전문가 및 귀농인의 체계적인 유입을 시도함으로써 농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확립하도록 한다.

광역 도농교류센터²⁸⁾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 권역별 체험마을, 체험농장 등의 네트워크 형성

체험마을 및 체험농장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중복 시설 투자를 예방하고 체험마을 간 상호 홍보를 시도함으로써 마케팅 효과를 보다 크게 한다. 권역내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지원하고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 행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또 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농촌·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안전한 농산물(친환경) 생산에 주력하고, 전문인력(귀농인) 및 여유인력(현지농민)이 농촌체험관광, 농산물 가공, 유통 영역 등을 담당함으로써 적절한 역할 분담을 기대할 수 있다.

○ 도농교류 프로그램의 체계적 개발과 교육, 정보제공 등

마을별로 분산되어 체험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 시행착오를 겪는 도농교류 프로그램의 체계적 개발을 추진하고, 관련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 프로

28) 박천창, “권역별 도농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 농림부, 농업희망찾기정책공모,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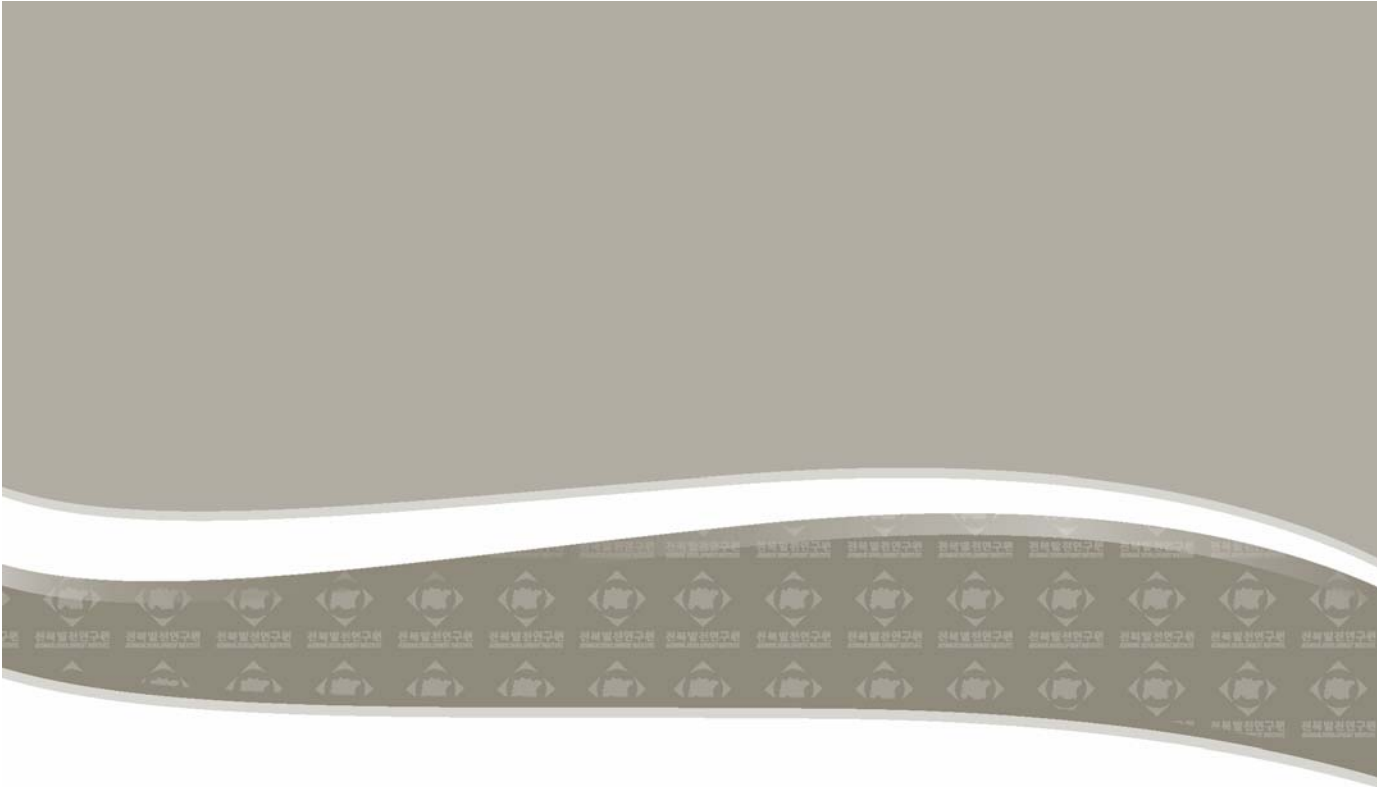
그럼 실시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 예비 귀농인 대상 교육 실시

예비 귀농인이 귀농 전에 현지에서 1-3개월간 체재하며 현장 경험과 병행하여 사전 교육을 받는 귀농인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 일부는 도농교류 가이드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농촌에 부족한 고급 인력을 체계적으로 유입하고 농산어촌 전문인력으로 육성하는 등 농산어촌 지역개발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시킨다.

○ 기타 사업

- 권역내 체험마을 소재 빈집 및 토지 정보 제공, 알선
- 체험마을 독자적으로 수행 어려운 대규모 행사 주최
- 체험프로그램 위탁 추진



부록

부록1 >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에 관한 통합지침』

제정: 04.11.25

개정: 06.01.0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통합지침은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부처의 역할, 공동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간 연계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각 사업의 추진목표를 달성코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① 이 지침에서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의미한다.
 1. 농림부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2. 행정자치부 아름마을가꾸기사업
 3. 해양수산부 어촌체험마을사업
 4. 농촌진흥청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5. 산림청 산촌개발사업(산촌체험사업의 경우에 한함)
- ②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각 부처는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안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한 실무협의회를 통해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3조 (실무협의회 구성)

- ①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농림부 농촌정책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호의 관계부처 담당과장 또는 팀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농림부 농촌진흥과장
 2. 행정자치부 균형발전팀장, 서비스정보화팀장
 3.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
 4.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자원과장
 5. 산림청 경영지원과장
- ② 실무협의회 간사는 농림부 농촌진흥과장으로 한다.
- 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관계부처는 실무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각 부처별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 시행지침
 2.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의 공동기획·조정을 통한 사업간 연계방안 사항
 3.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인력양성, 홍보 등의 공동추진에 관한 사항
 4.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의 운영 개선 및 정보화지원사업과의 연계추진에 관한 사항
 5.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의 통합, 전문화 등 중장기적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관계부처에서 요청하는 사항

제4조 (실무협의회 운영 및 역할)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부처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부처의 담당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장 농산어촌체험마을의 대상지 선정 및 실태조사

제5조 (농산어촌체험마을의 대상지 선정)

- ① 관계부처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의 대상지 선정기준에 대해 상호 협의하고 합의된 결과를 개별사업의 지침에 반영한다.
- ②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별사업의 지침에 의거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대상지 선정시, 유사사업간 중복지정은 가급적 피한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사업간 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농산어촌지역종합개발관련사업과 농산어촌체험관광관련사업은 중복지정 가능)
- ③ 제2항에 의한 사업대상지 선정시에는 최소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마을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량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농산어촌체험마을의 정기 실태조사)

- ①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관계부처에서는 연 1회 이상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실태조사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산어촌체험마을 지원사업의 추진현황
 2. 마을과 주변 환경의 일반특성 및 자원
 3. 1사1촌 자매결연 등 도시민과의 교류
 4. 관련 체험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
 5. 컨설팅 지원, 교육, 홍보 및 마케팅 분야
 6. 마을의 운영조직 현황
 7. 사전준비, 사후관리 및 지원사항
 8. 정보화현황 및 이용실태
 9. 제도적 개선사항 등 기타

제4장 농산어촌체험마을의 사후관리

제7조 (사후관리 대상과 기간)

- ① 사후관리는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사후관리 기간은 농산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된 연도부터 5년 경과한 연도 까지로 한정한다.

제8조 (마을지정팀 운영)

- ① 농산어촌체험마을의 체계적인 지원·육성을 위하여 관계부처는 마을지원 팀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지원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해당 지역의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 담당자를 활용하여 마을지원팀의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제9조 (마을지원팀 업무)

마을지원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산어촌체험마을 지원사업의 정기 실태조사 지원
2. 농산어촌체험관광관련 포털사이트 운영 및 관리
3. 주민 교육, 마을 경영지도, 컨설팅 등

제5장 자문위원회 구성

제10조 (자문위원회 구성)

- ① 실무협의회는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의 발전방향 등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의 개선안, 각 부처별 사업간 연계 방안, 중장기적 제도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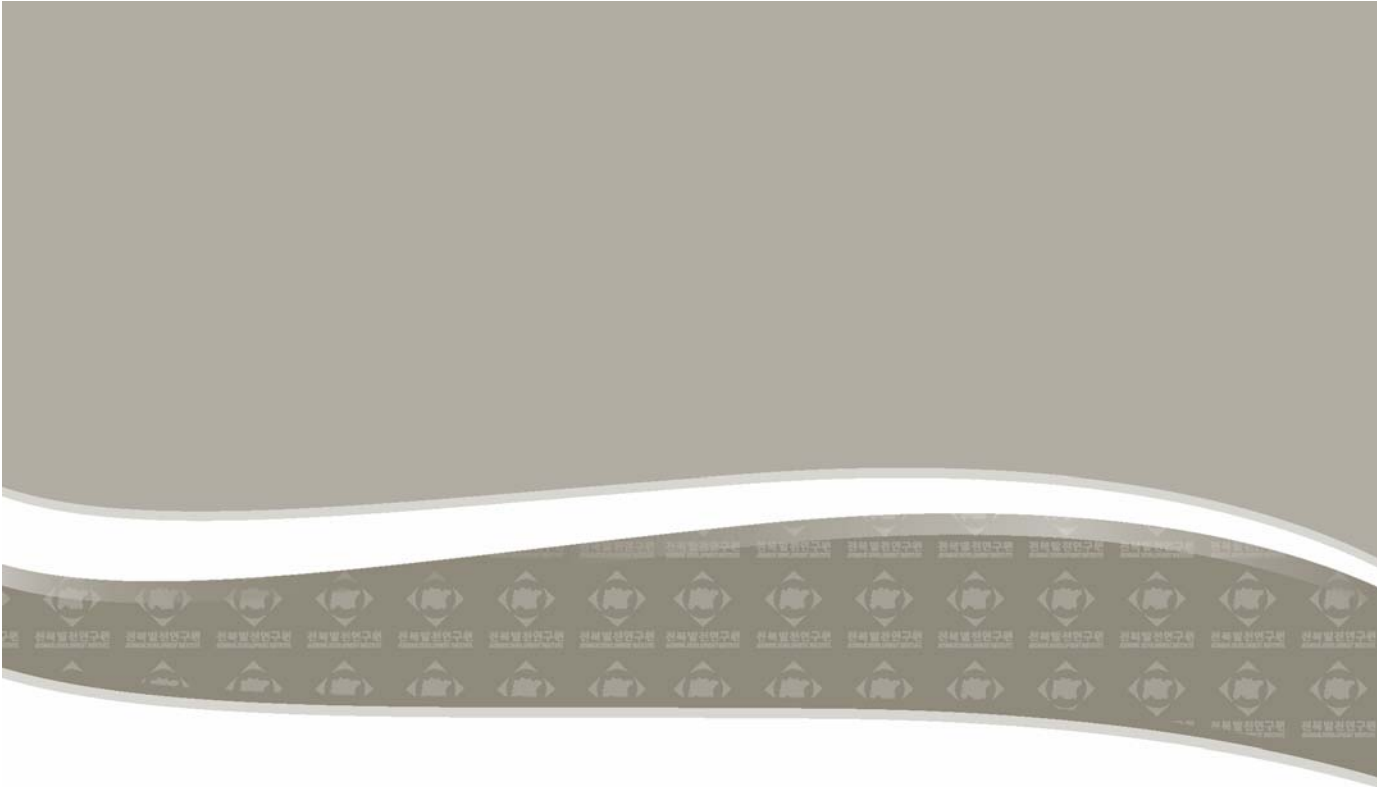
제6장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마을네트워크 구축

제11조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마을네트워크 구축)

- ① 중앙정부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실무협의회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개별 사업지침을 통해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을 육성·관리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업대상지 선정, 마을지원팀 지원 관련사항을 이행하고 개별사업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며, 농산어촌체험관련 지역단위 교육 및 홍보 등을 담당한다.
- ③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체험마을간 연대를 통한 상승효과를 위해 마을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제7장 부칙

이 지침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신겸, “여가시간 확대와 농촌관광의 가능성“, 여가와 농촌활성화 심포지움, 전국 농업기술자협회·삼성경제연구소, 2001
- _____, “그린투어리즘 수요활성화 방안”, 한국농업정책학회, 2003 하계 심포지엄 발표논문집, 2003
- 강신겸, 김정연 역, 「녹색관광」, 일신사, 1997
- 김남조, “지속가능한 관광개발과 지역주민의 태도” 한국관광학회 50차학술연구발표 논문집, 2001
- 김범수 외, “한국과 일본의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비교연구“, 관광연구, 제16권 제1호, 대한관광경영학회, 2001
- 김병률 외 2인,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 _____,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소정 협력사업 2차년도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 농림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에 관한 통합지침』, 2006. 1
- 농어촌연구원, “농촌 소득기반과 연계되는 생태·문화자원의 활용방안 연구”, 농업기반공사, 2002
- _____, “그린투어와 연계된 생산·생활기반시설의 정비 및 활용방안 연구”, 농업기반공사, 2003
- 문옥표, “일본농촌의 관광개발과 지역활성화”, 농촌사회 제8집, 1998.
- 박시현 외,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개발모형 정립과 실용화 방안』, 농림부, 2002
- _____, 「우리나라 농촌관광 발전 방향 및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 박윤희 외, 농촌관광 시설 및 서비스의 표준화와 등급화 방안, 농림부, 농업기반공

- 사 농어촌연구원, 2003
- 박재현, “그린투어리즘 발전방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지역주민의 의견을 중심으로”, 한국호텔관광학회, 호텔관광연구 제7권제1호, 2005
- 산림청, 『녹색관광과 산촌활성화』, 1999
- 서정교, 『향토음식(집) 및 특산식품의 개발과 육성』, 대구경북개발연구원, 1997
- 송두범, 『농어촌지역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충남발전연구원, 2002
- 송미령, “도농교류촉진을 위한 농촌 어메니티 형성방안”. 「2003년 새국토연구협의회 공동개최세미나: 그린투어리즘과 생활환경정비」, 농업기반공사·새국토연구협의회, 2003
- 아다치 스미오, “농림어업체험 민박을 통한 도시·농촌간 교류: 21세기의 이상향 다자연거주지역“, 월간 자치개발 8(4), 한국자치개발연구원, 2002
- 윤재만 외, 「주5일 근무제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 농협조사부, 2002
- 이상배, 「도시와 농촌의 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나남출판사, 1995
- 이인배 외, 「충청남도 농촌체험관광 실태와 활성화방안 연구 - 체험프로그램 과제의 도출을 중심으로」, 충남발전연구원, 2005
- 이창수, “도·농 지역사회단위 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충남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이호철, “그린투어리즘에 의한 지역사회개발방안 : 대구시의 약초 시민농원 개발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제10집, 한국농촌사회학회, 2000
- _____, “그린투어리즘에 의한 지역사회개발 방안”, 『농촌사회』 10, 2000.
- 임상봉 외, “농촌 소득기반과 연계되는 생태·문화자원의 활용방안 연구”,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2002
- 임상봉 외, “농촌개발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연구”, 한국농촌계획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2004
- 장경곤, “농촌지역사회개발을 위한 도·농간의 자매결연”,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전국농업기술자협회, 2004년도 제 1차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지도자 과정, 2004
- 전영미 외, “도시민의 선호를 바탕으로 한 농촌마을의 관광자원 실태와 정비방향”, 「농촌계획」 9권(1호), 한국농촌계획학회, 2003

- 전영미, “농촌관광을 고려한 마을정비방향”, 「2003년 새국토연구협의회 공동개최 세미나: 그린투어리즘과 생활환경정비」, 농업기반공사·새국토연구협의회, 2003
- 전영미 외,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마을의 조성방향”, 「농어촌과 환경」 통권 제80호,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2004
- 정기환,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정책의 발전방향“, 『농촌경제』, 제24권 제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 _____, “그린투어리즘 정책방향과 과제”, 그린투어리즘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정책토론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6.29.
- 최동주, “일본의 그린투어리즘”, 계간 농정연구 통권8호, 사단법인 농정연구센터, 2003
- 최원국, “도·농교류 체험학습에 관한 학교구성원들의 의식과 문제점 분석”,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한국관광공사, 「농어촌관광개발 활성화 방안연구, 1996
- 한국관광연구원, 「제2차관광개발기본계획」, 200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리나라 농촌관광 발전 방향 및 방안」, 농림부, 2003

전발연 2006-R-09

농산어촌 체험마을 종합관리방안

발행인 | 한 영 주

발행일 | 2006년 12월 31일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560-014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1번지
전화:(063)286-9201 팩스:(063)286-9206

<http://www.jd.re.kr>

ISBN : 978-89-92471-10-7 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발전연구원에 속합니다.